곰누리 멋짓 추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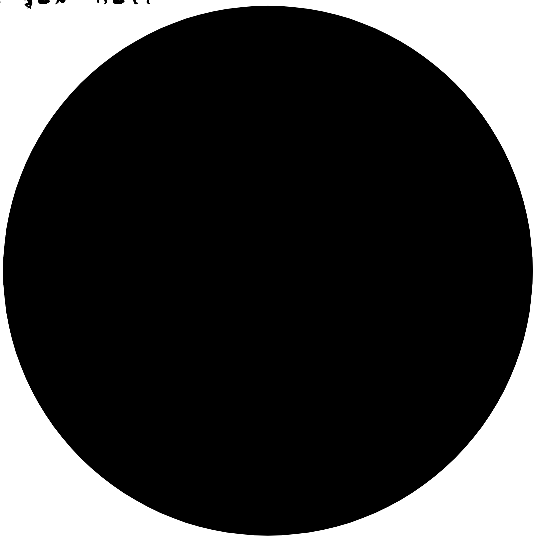
4309 해부터 4349 까지 드러내 보인 멋짓들을 추린다.

곰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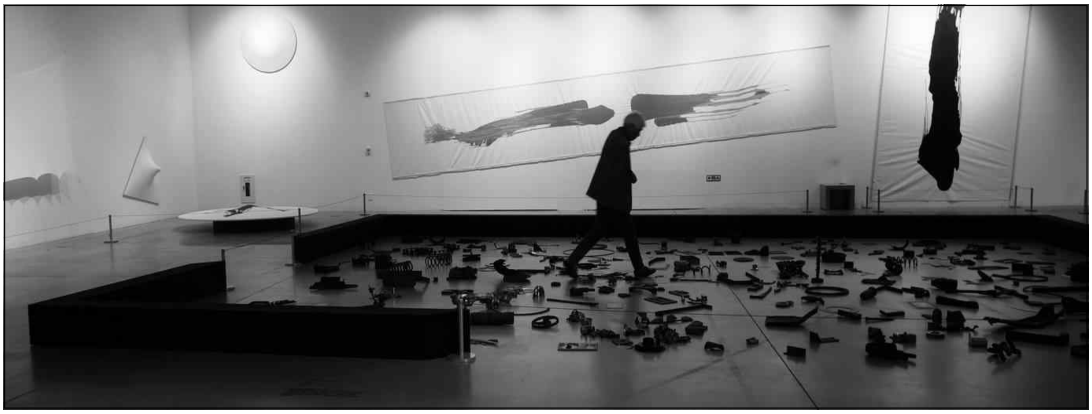
Le sommaire des travaux 1976-2016 de gum nuri

gum nuri

g n ri
u u
m



지난 멋짓들을 추림으로서 새로운 솟뜻을 다시 찾아내어 새로운 바탕이 되는 쓸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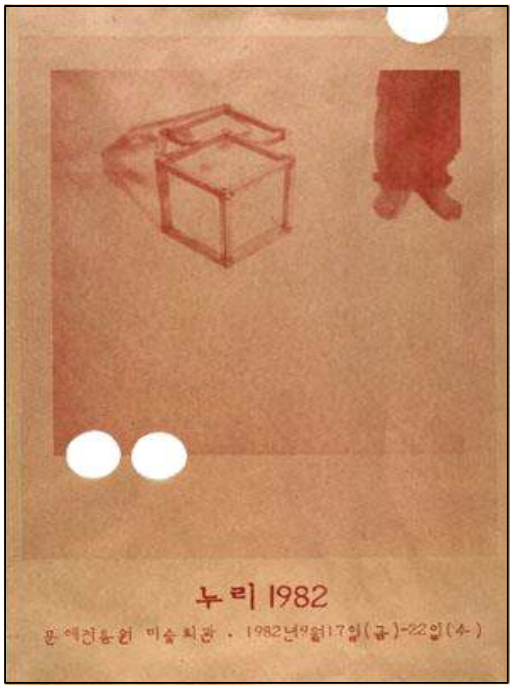
지난 4349해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곰누리가 보인 멋짓들이다. 찍은이:안상수

●■▲ 홀로 보잉

1977.05.30 '네모꼴 변주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사랑이 만든 가장 바탕이 되는 꼴이라 할 수 있는 네모꼴을 여러 얼개를 이루며 만든 것은 멋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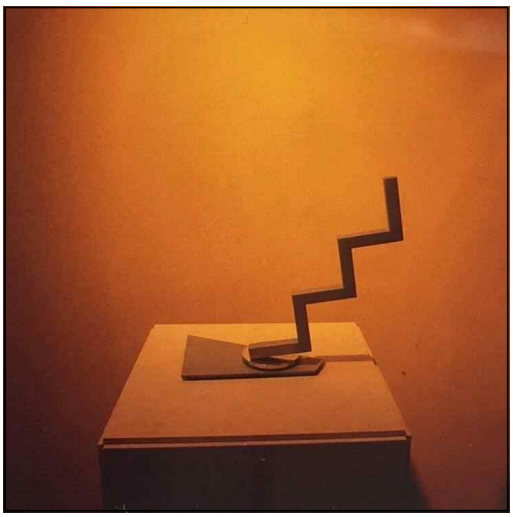
1982.09.17 '누리 1982', 서울, 미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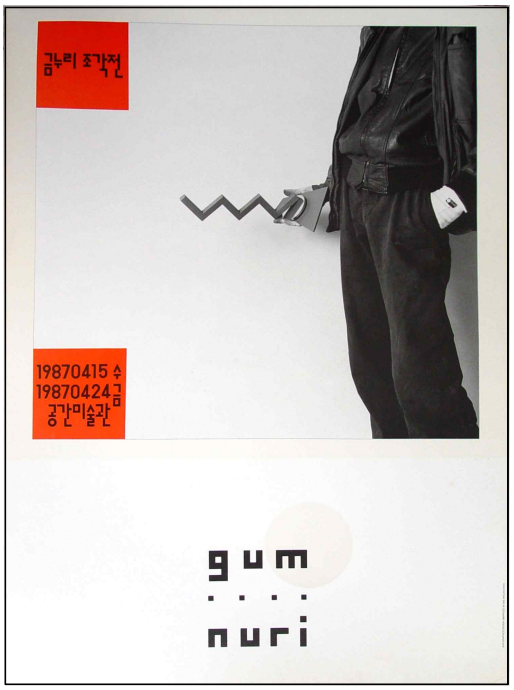


잔치알림은 값싼 누런 종이를 쓰고, 글은 공병우가 만든 글틀을 두드려 썼다.

설기덩이와 눈솟잉 그림처럼 드러나는 그림자를 함께 섞어 만든 멋질들
빛밧이는 김장섭, 잔치 알림 마련그림은 안상수와 함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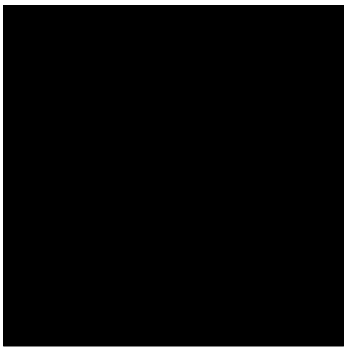
1987.08.15 '누리 1987', 서울, 공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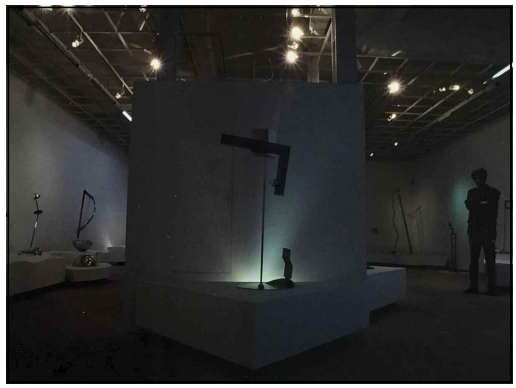


놓여 있는 걷만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여러 얼개로 이에 따라 스스로 달라지는 꼴을 이루는 멋질들을 함께 보였다.
빛밧이는 배병우, 잔치알림 마련그림은 안상수

"금누리는 단단하고 차가운 재료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간적 형태를 창조하는 걷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홍가이,
"금누리는 형태를 만들 때 자연의 요묘함을 활용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걷은 어느 일면 '자연적 창조물'이 갖는 특성과'인간적 창조물'이 갖는 개성 사이에서 어떻든 그 자신의 뚜렷한 창작적 관심과 이념을 선택하겠다는 의식의 한 발로라고 볼 수 있겠으며,하나의 경고적 발언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을 걷이다." 윤우핫,



1991.10.03. '누리 1991', 서울, 갤러리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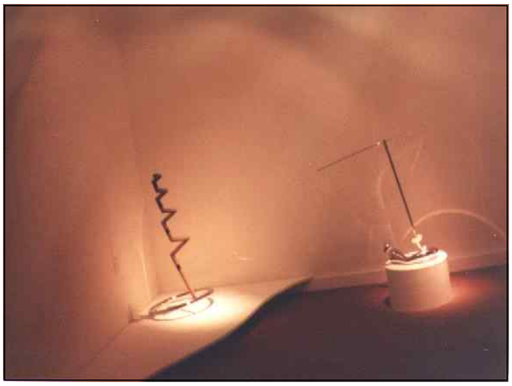
밀고 당기는 보이지 않는 쇠줄힘과 움직임을 "이 숨겨진 얼개를 느끼게 하는 먹칠들
먹칠들이 놓이는 받침들을 물결처럼 휘어듀어 새로운 느낌을 보이기도 했다
빛반이는 주명덕, 배병우, 이주헌

"그누리의 작업은 아주 민감한 감각을 바탕으로 한 지적이며

미적인 추구로 보인다.
우리의 시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빈틈없는 매끄러움으로 차갑고 이지적이다." 유재길,
금누리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비단 조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화, 건축,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매번의 개인전 때마다 그의 카타로그는 자신의 전시를 소개하는 안내서나 둘러리 장식품으로서의 성격을 넘어서 하나의 독립된 창작으로서의 예술품과 진배없다." 정영목,

'누리 1991' 때 먹질들을 바탕으로 다른나라 사람들을 만난 셈이다

1992.04.11 '누리 1992', 토론토, 테오도르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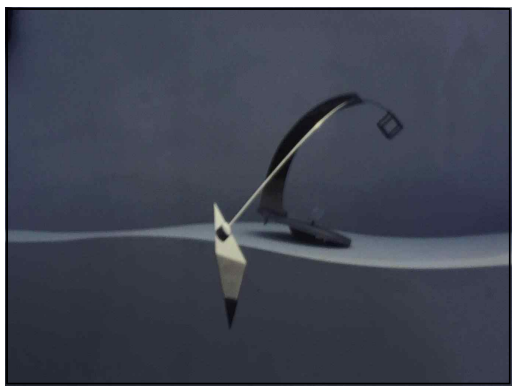


"like western sculptors such as david smith and picasso,
nuri gum has chosen to work with unusual materials of their own,
but his work also illustrate a strong sense of design create sculpture that is lasting, it is almost like permanent suspended animation!" ethel christensen

"nuri gum's art is far removed from any preconceived, stereotyped notions of korean art, these sculptures from the east are symbols that fit a universal sense of
contemporary aesthetics and that remind us of the inevitability
and increasing dependence of humans on high technology."
luciana benzi

"it is not shocking or earth shaking, rather it is well-conceived, economic, fun and consistent. this is unto itself if refreshing, originating in tradition and translated well for the present, nuri gum's art will,
no doubt, develop in to the future with the artist, at a steady,well thought pace." paull simm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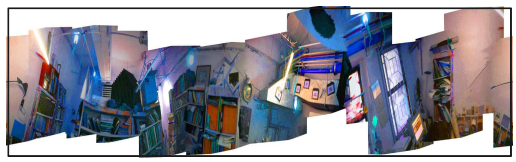
1993.10.09 '글누리,안상수 이중개인전', 서울, 온갤러리



먼질과 그걸을 싸거나 번긴 껍질도 함께 보여주기도 한 먼질들이다.
먼질을 이루는 길도 보여지게 되는 셈이다.
안상수와 이중개인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느낌을 보인 먼질잔치이다.

우리 빛밧이는 김대수, 알미늄 널에 돌을새김한 잔치알림 마련그림은 안상수와 함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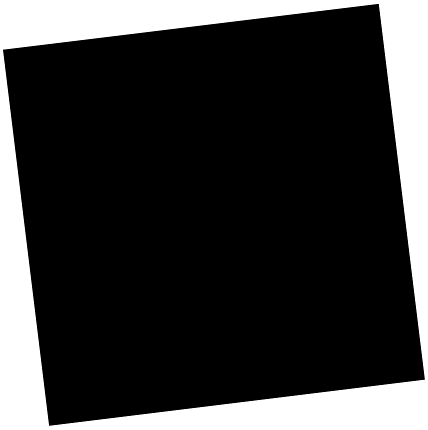
1998.09.09 '글누리 0.027년전, 서울, 사이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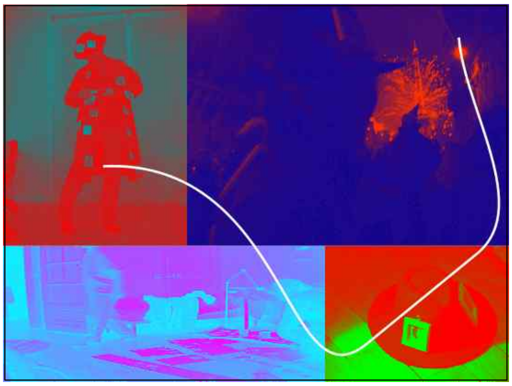
셍틀로 그린 100 가지 우리나라에 그링에 이리저리 모은
건들을 붙인 먼질들이다
그링방과 나의 일터에 셍틀과 빛밧이를 이어두어 말틀은 물론
번개웅짓그링과 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였다
빛밧이는 유한징과 고영태

1999.03.09 '공간의 본질과 관조의 거리' 부산,
시립미술관

모래로 만든 얼개와 셍틀로 그린 그링에 모래를 함께 쓴
먼질들과 그링들이다.
빛밧이는 유한징



1999.12.31 '1999.빠리.2000' 빠리,
샹제리제 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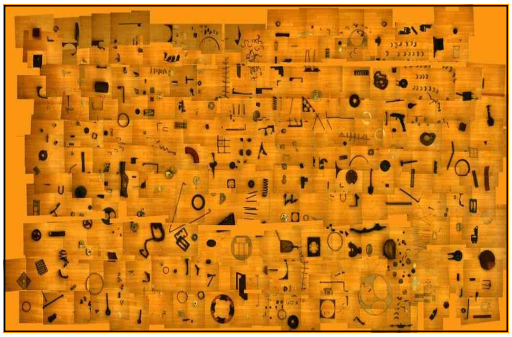


갓과 옷에 찾은 그림들에 넣은 내 먼질들 달고 빠리에서 벌린 번개 먼진이다.
빛박이는 구름비, 오려 붙인 움직그림은 유한짐

2006.09.11. ''장소-공간', 헤이리, 소담 갤러리

검은 털로 만든 얼개들로 만든 먼질과
새끼줄 수레들로 땅힘을 빌려 그린 그림들이다.
빛박이는 금두루

2007.09.13 '금누리 + 안상수', 서울, 쇳대박물관



잠자리나 지렁이처럼 벌레들의 글꼴들을 생각하며 만든 먼질들이다
그 바탕 생각은 금누리 글꼴은 빛빠르기보다 넓다.,
눈감고 보아도 들린다.
빛박이는 김성태, 펼친그림은 임형모

2008.09.23. '금누리.+ .안상수', 디자인 포트, 서울, 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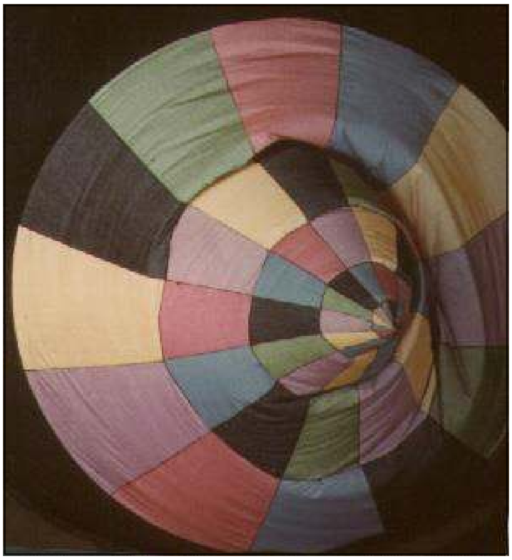
책 보고서 보고서를 엮어 만든 걸상 두 개
오른쪽 걸상은 예술의 전당 디자인박물관에서 지니고 있다.
빛박이는 임세준, 알림쪽지는 안상수가 마련그렸다.

2015.09.08 '타이틀매치, 금누리 vs 홍정표', 서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땅힘으로 그린 그림들과
옛 멋짓들을 추렸으며, 배우미들께 한 물음 '내 예술 한잔 받게'와 그에 맞는 글들을 따 붙이고 번개 멋짓도 하였다.
하얀 당안에 들어가 움직멋짓하기도 하였는데, 그에 앞서
앞선 위 빛박이는 임창진, 아래 빛박이는 김상덕,
잔치알림 마련그림은 김홍성이 함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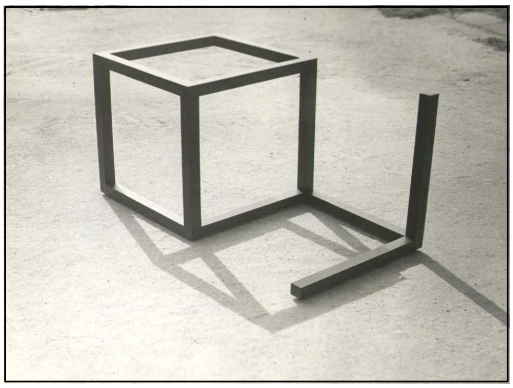
●■▲ 떼로 보임

1995.09.01 야외조각전, 서울, 홍익대학교 야외전시장



보이지 않는 바탕이 만드는 움직먼질이다.
아래 위로 부는 바탕에 따라 몇 쪽마다 오르내린다.

1976.02.17 제2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내모와 설기 사이 사랑이 만든 꼴들 가운데 가장 바탕이 되는 네모설기를 열어 엿어 다른 곳 다른 때를 이어 펼치는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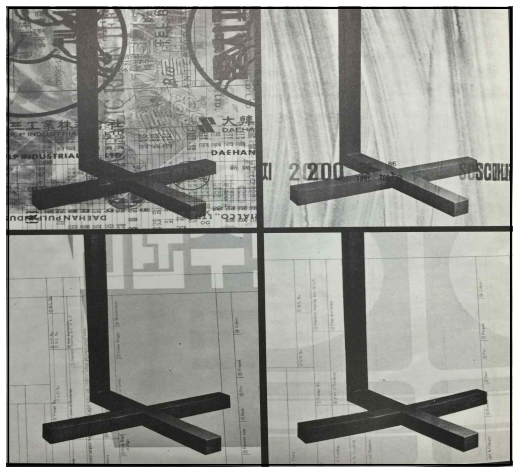
1976.05.20 한국미술청년작가전, 광주, 전일미술관
1976.08.02 야외작품 발표, 충남, 안면도 꽃지해변
...
...
...

총 멈질

1977.04.02 한국미술청년작가회관 개관 기념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1977.04.18 조각 21인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1977.06.05 시형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1977.08.06 한국미술청년작가전, 필라델피아, 발치인스티튜트미술관
1977.12.19 24인의 실험작가전, 서울, 청년작가전
1978.04.00 제7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춘천, 도립문화원
1978.05.00 제8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충주, 도립문화원
1978.06.00 제9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대전, 대전화랑
1978.07.00 실험작가21인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1978.07.00 청년작가하계소품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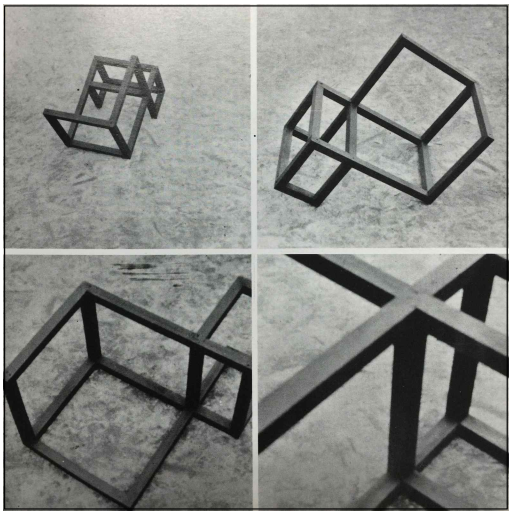
1978.09.14 서울예고 창립25주년 기념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1978.12.02 제10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78.12.00 청년미술관 건립기금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1979.02.13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파리, 국제미술회관

떠있는 네모들 빈 곳에 띄운다면 그림처럼 보이기도
설기덩이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하늘 위 구름처럼 ...

1979.03.21 살롱 쉬르앙방당, 파리, 룩셈부르그 미술관
1979.06.00 74-77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1979.08.01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제주, 칼호텔

1979.08.24 시형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81.03.26 한국현대작가전, 파리, 한국문화원

구리를 휘어 만든 네모 설기로 움직일 수 있는 먼질이다.

1981.12.10 제13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서울, 미술회관

구리를 두드려 휘어 만든 네모 설기들로 가운데 꽂은 움직일 수 있는 먼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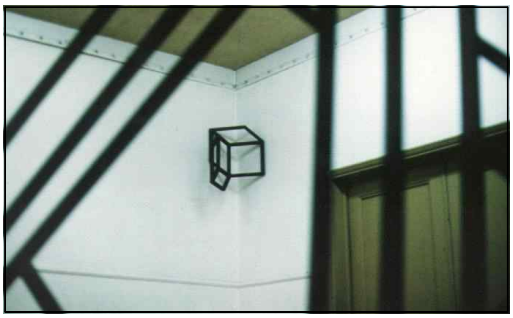
1982.05.00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춘천, 시립문화원
1982.05.07 시형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82.06.11 홍익조각회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82.08.02 사변연습전, 서울, 공간미술관

내외와 설계 사이 움직 먼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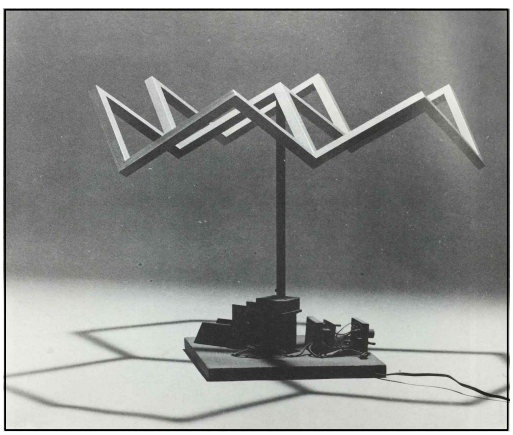
1982.12.24 제19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서울, 미술회관
1983.01.14 제3미술관 개관기념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3.02.12 청년작가전, 서울, 코리안현대미술관



1983.03.02 청년미술관 개관기념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3.03.09 30대작가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3.07.00 환경조각을 위한 드로윙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3.05.18 시영조각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3.05.02 서울예고 창립 30주년 기념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1983.07.20 제21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3.08.31 현대조각 11인전, 서울, 은 갤러리
1984.01.11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신년 초롱전, 서울, 청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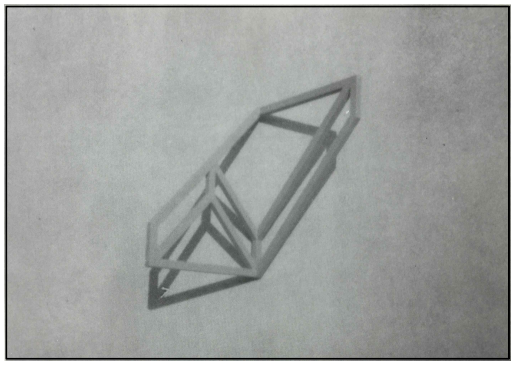
1984.02.29 한국현대조각 단면전, 도쿄, 한국문화원



돌아가는 움직먼질로 세포의 무게가 서로 같고 가운데 곳지에 걸쳐놓아도 쓸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살짝 흔들리며 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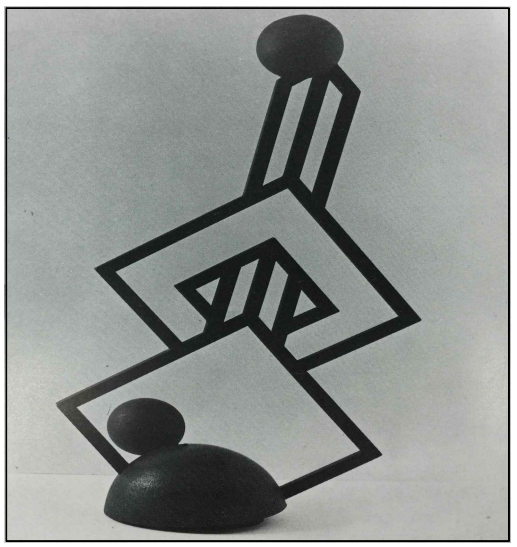
1984.03.01 환경조각을 위한 에스키스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4.04.29. 제14회 홍익조각회전 서울, 문예진흥원미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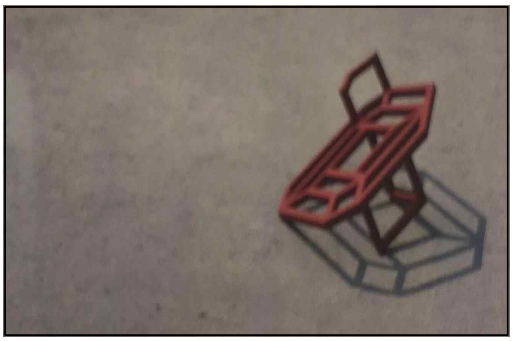
1984.06.00 환경조각을 위한 에스키스전, 제주, 동인미술관
1984.08.02 제23회 올림픽 기념 홍익조각회전, 롯데갤러리한국문화원

1984.08.03 제22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서울, 문예진흥원미술회관



1984.12.12 '84 한국미술청년작가회 동계소품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5.01.30 '85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신년소품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5.04.03.한국미술청년작가회, 서울,청년미술관

1985.05.20 제16회 홍익조각회전, 서울, 홍익대학교박물관



경쟁자가 더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한 멋질이다.

1985.06.17 서울갤러리 개관기념 조각초대전, 서울, 서울신문갤러리
1985.10.19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강릉, 시립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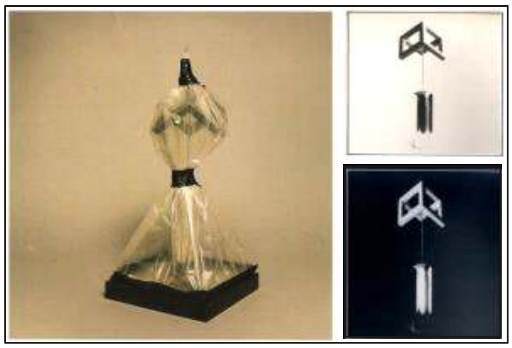
1985.10.22 한국조각가협회 창립전, 서울, 서울신문갤러리

1985.10.00 중앙청역 미술전시장 개관기념전, 서울, 중앙청역전시장
1985.11.16 서울, 도쿄 작가들의 11월전, 서울, 한강갤러리
1985.12.18. 제24회 한국청년작가회, 서울
1986.03.12 '86 한국미술청년작가회 명예회원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6.04.07 서울 현대미술 6인전, 도쿄, 갤러리 H 네모설기와 경쟁자 ... 움직멋질
1986.04.18 홍익조각회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86.06.21 한국미술청년작가회 대전전, 대전, 대전문화원
1986.07.04 오늘의 현대조각가 10인전, 서울, 바탕골미술관
1986.08.15. 제2회 한국조각회전, 서울,
1986.09.11 예홍전, 서울, 백상기념관
1986.09.16 제26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서울, 서울갤러리
1987.04.25 신천지미술관 개관 기념전, 제주, 신천지미술관

1989.05.23 토탈미술관 4주년기념 한국조각의 오늘전, 장흥, 토탈미술관

돌아 오르는 회오리가 아니라 내가 껏어 올리는 회오리 멋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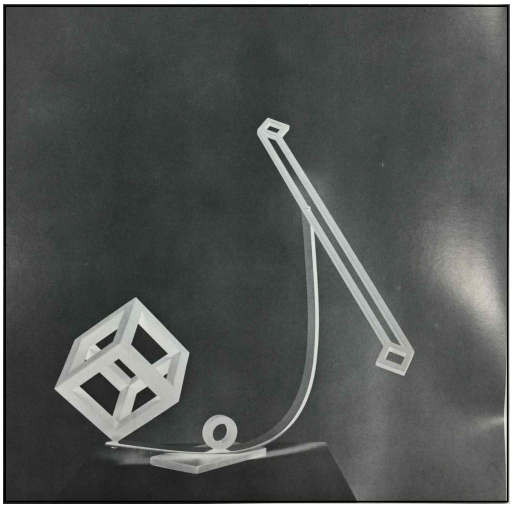
1987.04.13 건축가 고 김수근 교수 1주기 추모 개인전, 서울, 공간미술관



싸서 꾸린 것도 나의 먼지인 셈이다.
나는 산 사람만이 꾸려간 이 먼지을 풀 수 있다고 하였다.
내가 다시 싸 꾸리기를 알려줄 수도 있으니...

1987.08.14 제10회 시영조각회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관
1987.08.28 30/40; 계하핫이 있는 추상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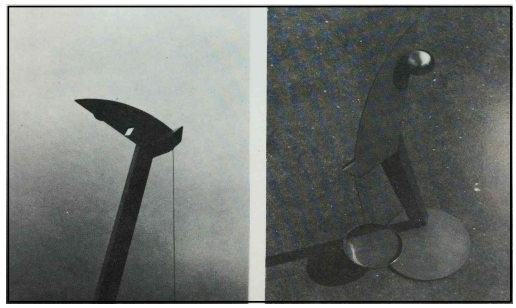
1988.02.16 한국현대미술전, 멕시코, 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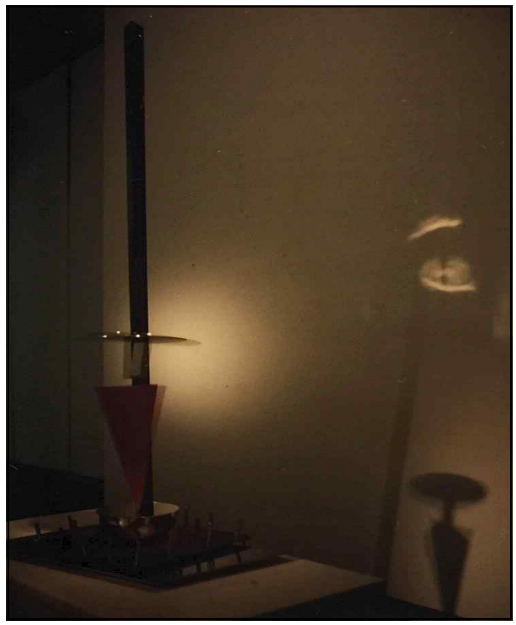
1988.09.10 88올림픽 기념 현대 미술제, 과천, 코리안현대미술관

1988.12.00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과천, 코리안현대미술관
1988.12.07. 제28회 한국청년작가회전, 서울, 코리안현대미술관
1989.02.14 한국현대미술전, 멕시코시, 코리안현대미술관

1989.04.09 한국현대미술-80년대의 정황, 서울, 동숭아트센터



1989.07.02 빛과 움직임전, 서울, 뮤엣센터 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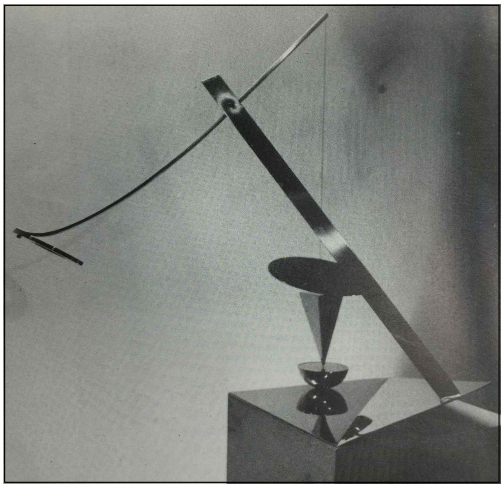
당긴 쇠를 쓴 움직먼질 아래 세월이 아주 작은 바람의 힘으로도 흔들린다.

1989.03.30 만리장성과 베니스를 위한 현대미술전, 파리, 드루-몽때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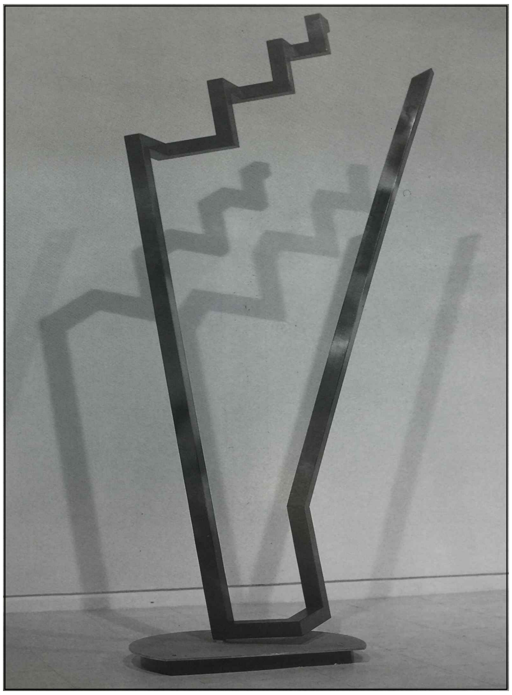
1989.05.06 만리장성과 베니스를 위한 현대미술전, 북경, 중국역사박물관

당김쇠로 매어 단 움직 멋짓

1990.03.02 제21회 홍익조각회전, 서울, 미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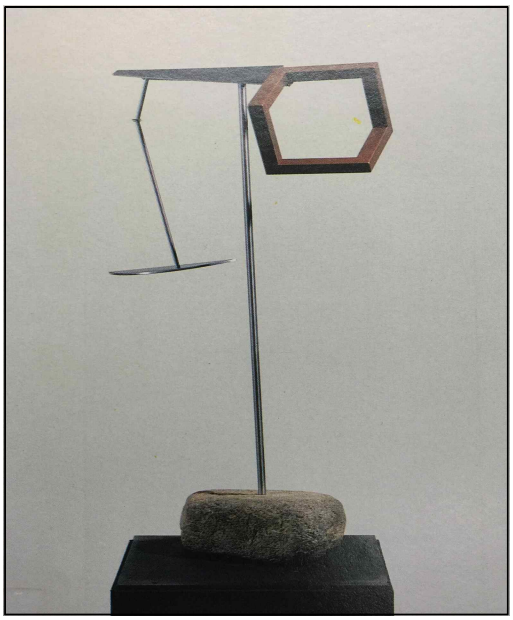
1990.03.29 조각그룹광장창립전, 서울, 미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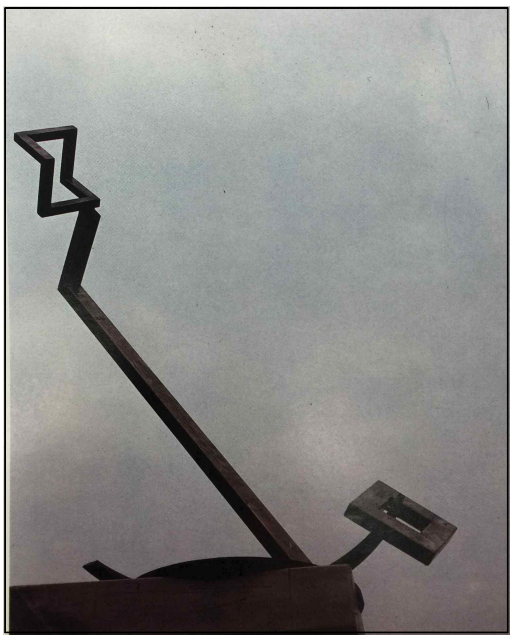
1990.05.07 청송야외조각전, 서울, 연세대학교

1990.06.06. 시영조각회전, 서울, 백송화랑

1990.05.10 한국조각가협회전, 서울, 미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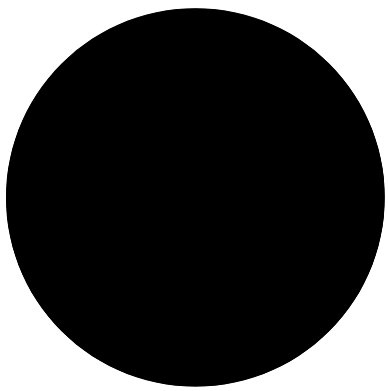
1990.06.29 '90 현대 조각전, 서울, 조형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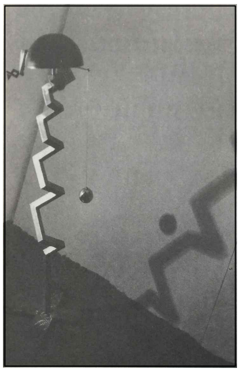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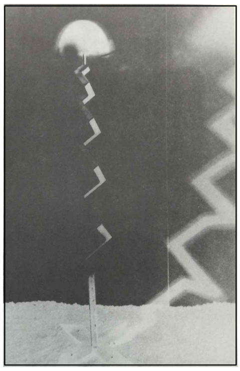
1990.09.24 시영조각회전, 서울, 서울미술회관

1990.08.02 한국 현대미술제, 과천, 현대미술관
1990.09.08 한국화와 조각의 10인전, 서울, 영동화랑

1990.09.19 전자카페 통신미술,서울+산타모니카, 안그라픽스 + 일렉트로닉 카페







1991.12.06 한국현대미술전, 엑상프로방스,
바자렐리재단미술관

1992.06.07 한국 현대미술제, 과천, 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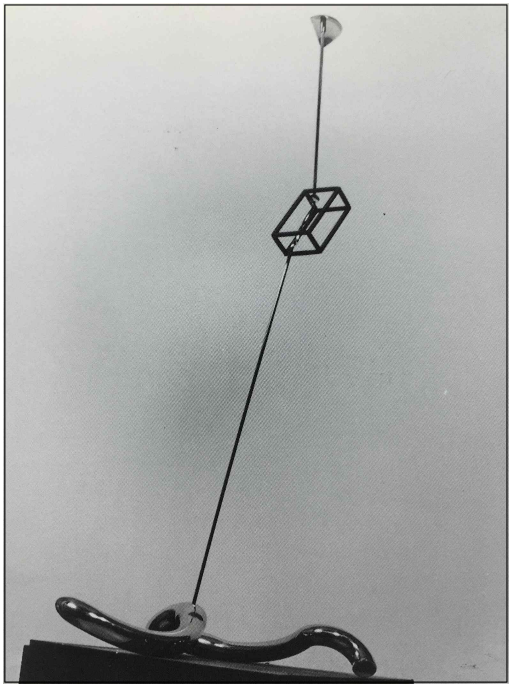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나눈 천 번개편질
서울에서는 고낙범, 금누리, 문주, 백광현, 안상수, 이규철,
이불, 최정화 산타모니카에서는 킨 갈러웨이, 김효신, 하워드
깅, 박혜경, 박혜숙, 세리 라비노비치, 로디아노 크래프트가
함께했다.

1990.12.15 이미지와 추상의 오늘전, 서울, 데코미술관
1991.03.29 광장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91.04.10 의식과 표현의 확산전, 서울, 롯데미술관
1991.06.19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 작업전, 서울,
예술의전당
...
...
...

마음의 움직임이 쳐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 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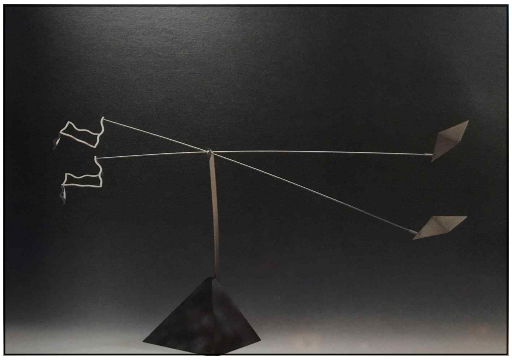
1991.12.?? 테크놀로지의 예술적 전환, 서울,
서울국립현대미술관

1991.12.?? 제16회 청년작가회전, 서울,
1991.12.06 한국 현대 미술전, 서울, 갤러리 미건



1992.07.15 '92 광장전, 예맥화랑, 서울
1992.07.23 '92 현대조형전, 제주, 신천지미술관
1992.09.04 한국조각가협회전, 서울,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92,09.23 에꼴 드 서울전, 서울, 관훈미술관,

1992.10.09 한글 주제 전, 서울, 서림화랑



1992.11.27 떼오 앤 페트 콜랙숀 서울전, 서울, 공평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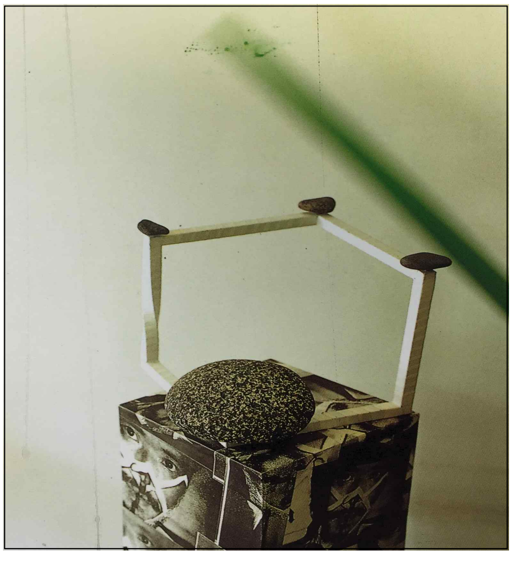
1993.08.11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 작업전, 서울, 시립미술관

1994.07.07 책을 소재로한 미술전. 바르샤바. 베르린 ...

하루 몇 때 만에 만든 책을 소미망으로 막아 읽지 못하게 만든 먼질

1994.12.01 3030전, 서울, 김내현화랑

1995.02.17 '95 광장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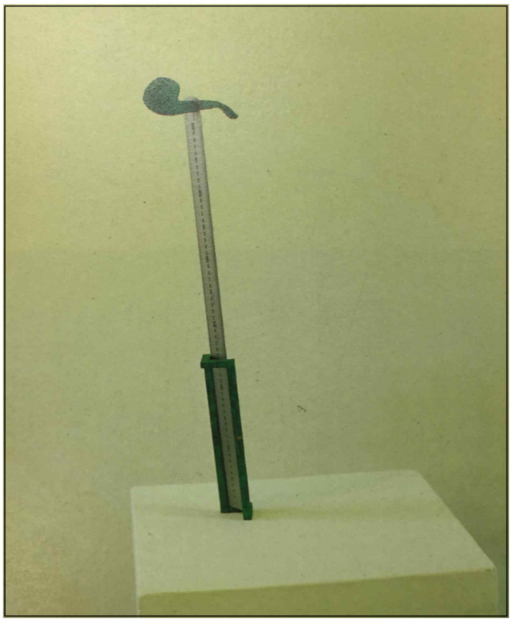


1995.03.22 한국 조각의 오늘전, 서울, 종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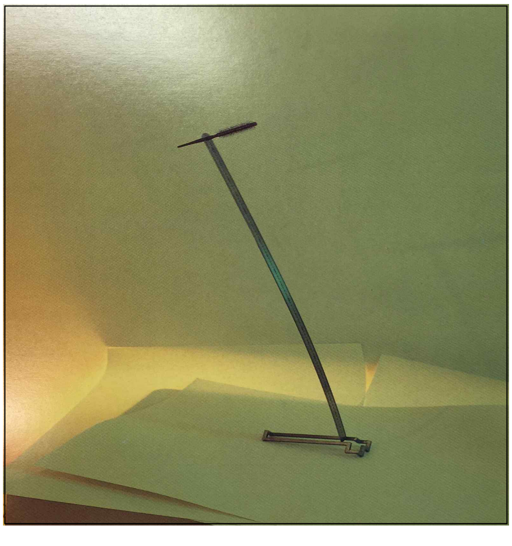
1995.10.10 blue wave 전, 서울, 청화랑

1995.12.11 작은 조각전, 서울, 유경갤러리

1996.03.01. 홍익조각회전. 서울,미술회관



1996.08.27 나고야. 서울. 입체조형의 교류전, 나고야, 시민갤러리



머리빗을 쇠자 끝에 달아 흔들거리게 하였다.

1996.10.07 도시와 영상,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타고 다니던 수레를 도우미가 몰아 놓도록 하였다.
가장 쉽게 만들어 보인 먼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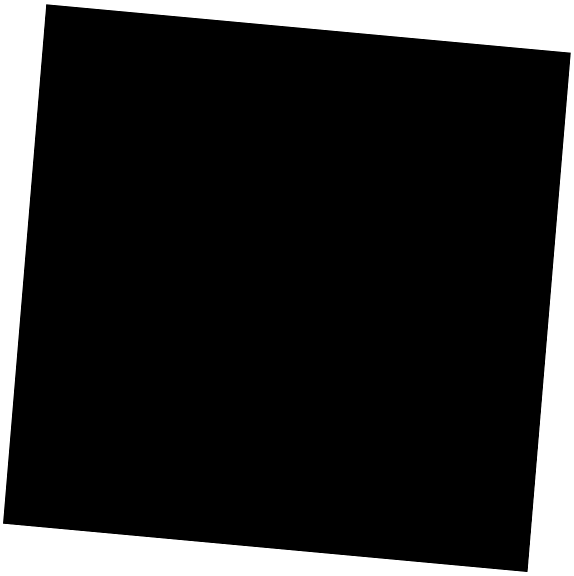
1996.10.17 문자의 세계전, 예술의 전당 미술관, 서울

옛 글널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달아 붙임

1996.11.19 제9회 성북미술전, 성북구청 강당, 서울
1996.12.04 한국 현대미술 현재와 미래, 홍익대 현대미술관, 서울
1996.12.11 조각그룹 광장전, 인사갤러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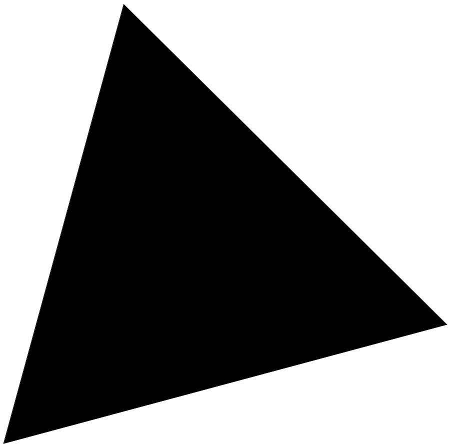
1997.04.04 안상수,이불,공누리 3인전
'사사운동'서울, 살뮤지움, 빛받이는 이재용

노래 먼짓 ... 모래 먼짓 ...



1997.08.01 서울,나고야 입체조형의 교류전, 종로갤러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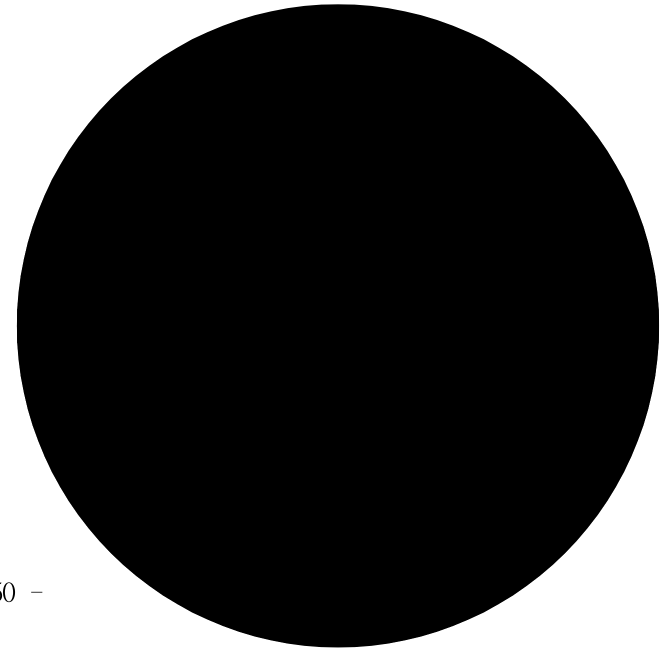
가장 깊이 있는 멋짓
원뿔에 모래가루를 붙이고는 뒤집어 놓고 그 깊숙한 곳에는 그 때 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멀티볼트들을 넣어두고 나 그리고 딸 아들 이름을 앞에 두어 그물을 지나 그림이 보이듯 흙누리글꼴로 만든 우리들 얼굴을 지나 모든 움짓그림들이 보이도록 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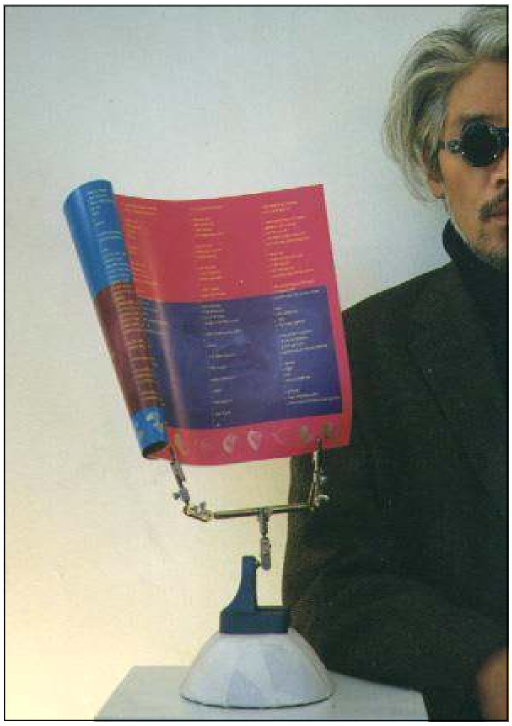
1997.08.21 조각그룹 광장소품전, 원서갤러리, 서울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 가는 날틀 안에서 얻은 것들로만 만든 멋짓

1997.10.01 한일조각 6인 교류전, 모앙미술관, 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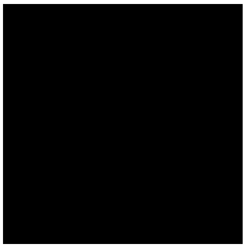


1997.11.12 '97 광장전, 종로갤러리, 서울



나의 그림글꼴과 스스그림에 내글을 새긴 책을 집게받침에 둔 멋짓이다.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마련한 가르침에 보여 읽도록 하였으며
나의 어떤 스승은 고개를 돌리며 힘들게 다 읽으셨다고 한다.
가장 오래 본 멋짓인 셈이다.
빛박이는 이대원

1998.03.06 불확실성에 대한 탐구전, 홍익조각회, 서울, 문예진흥원미술회관
1998.04.15 200인 조각가 소형 작품전, 서울, 선화랑



1998.06.13 공연 속의 조각전, 서울, 국립중앙극장 문화의 뜰

스스로 자라는 풀과 종이책처럼 오래가지 않는 솔강으로 박에

그 누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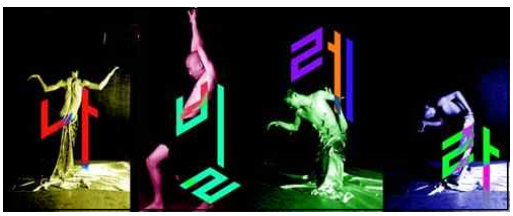
놓은 먼질이다.
먼질의 쓸강을 튼튼하고 오래가는 것이 아니어도 스스로 사라져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
빛밧이는 이대원

1998.09.17 보고서/보고서 0.1세기 새 선언전, 서울, 사이갤러리
1998.11.15 설치와 퍼포만스, 옷는돌 야외공연장, 죽산
...
...
...

충꾼 홍신자와 그의 손님들께 보인 칠 던지기 칠 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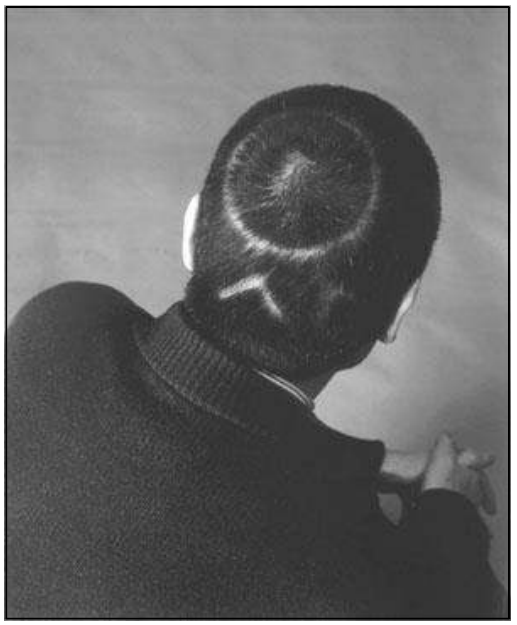
1999.03.03 제30회 홍잇조각회전,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600년기념관
1999.03.09. 공간의 본질과 관조의 거리, 부산, 부산시립미술관

1999.09.08 동아시아 문자예술의 현재전,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관



생틀로 쓴 글, 모래로 쓴 글과 장자리를 걸어둥
위 그림은 집먼마련비 고영태의 춤에 금누리 글꼴을 새겼다

2000.01.15 머리조각 ㅇㅅㅅ 전,



안상수가 델아비브와 파사데나로 보름 나들이 가는 날 아침 그의 머리카랏을 깟아 만든 먼질이다.
살아 움짓이며 자라는 먼질이며 살아 움짓이는 먼질잔치가 된다. 빛밧이는 이재용

2000.06.15 관객설치, 제6회 죽산국제예술제, 죽산, 옷는돌 야외극장

손님들을 쓸강으로 쓴 먼진인 셈이다.
살아 움짓이는 먼질이다.
살아 움짓이는 마당 놀이이다.
갇힌 곳이 추는 춤이다.

공누리 멋진 주리기 Y3Y90115

빛받이는 김다물

2001.02.01 제17회 조각그룹 광장 초대전, WING GALLERY
2001.07.12한글전, 토쿄, 지지지갤러리, 오사카, 디디디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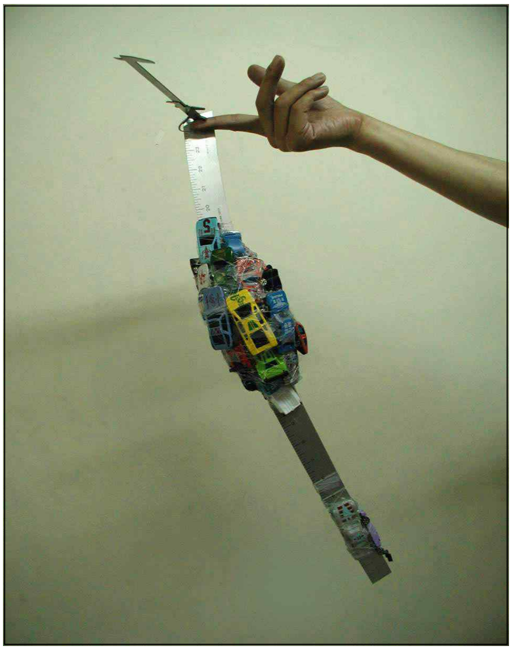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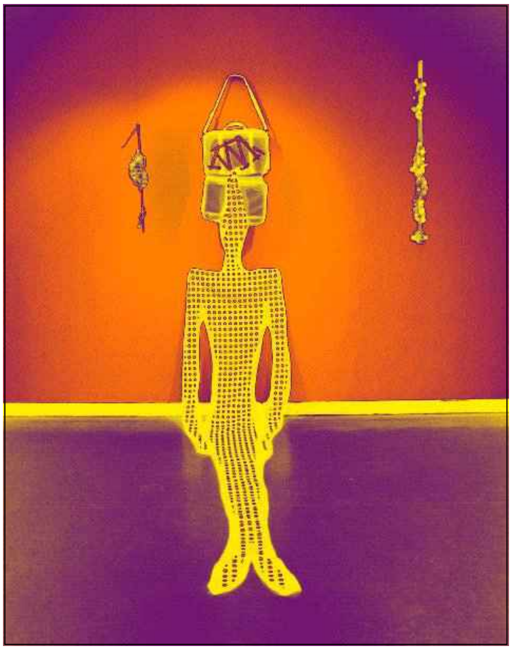
나 스스로 생각한 하늘. 땅. 사람을 드러낸 꼴과 얼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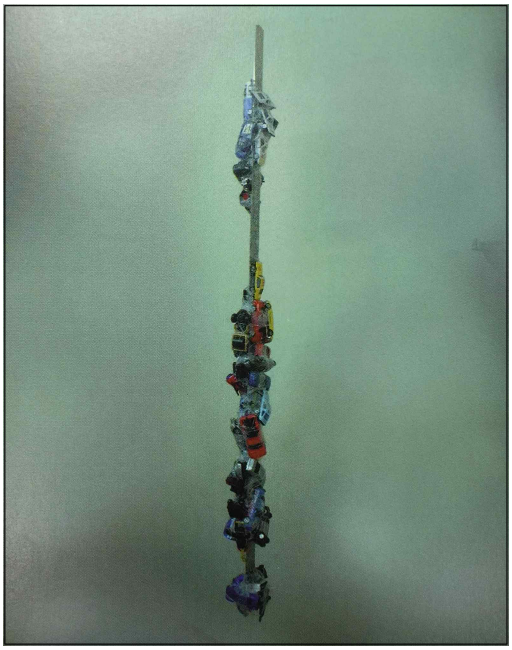
2001.08.14 제32회 홍익조각회전, 서울, 시립미술관



2001.10.02 한글전 GGG 토쿄 긴자 그라픽 갤러리
2001.11.19 2001조각그룹광장 한일 교류 사회풍자전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

2002. 02.15 영혼의 바람, 카투만두 네팔왕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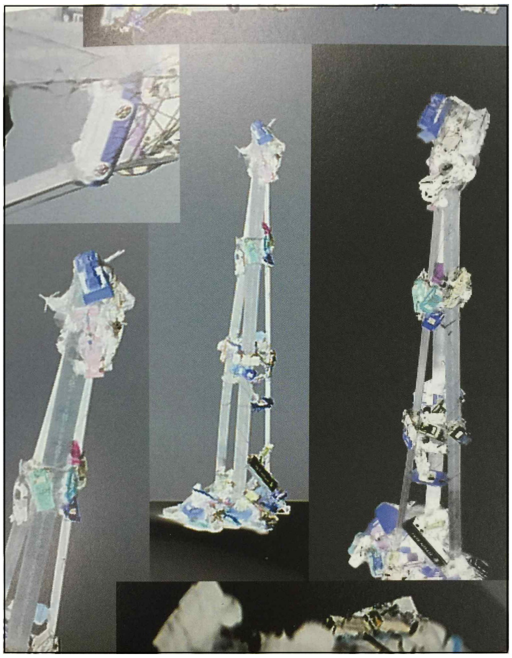


글 누 리

휘어진 눈금자들과 버려진 알림 돌을 잘라 나들이 가방에 담아 그곳에 펼쳐두었다
빛받이는 전용수 셀틀랐는 내가 바꾼 것이다.

2002.07.03 제33회 홍익조각회 세종문화회관 전시장

2002.09.25 Korean mass/japaness Figure 모앙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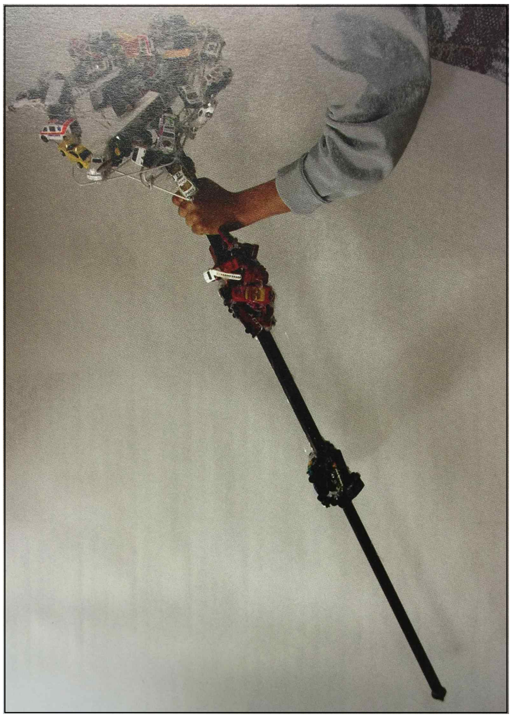


2002.10.01 광장전 가수가이시도서관 문화예술 센터

장난감 싸움수레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풀로 엮었다.
빛받이는 최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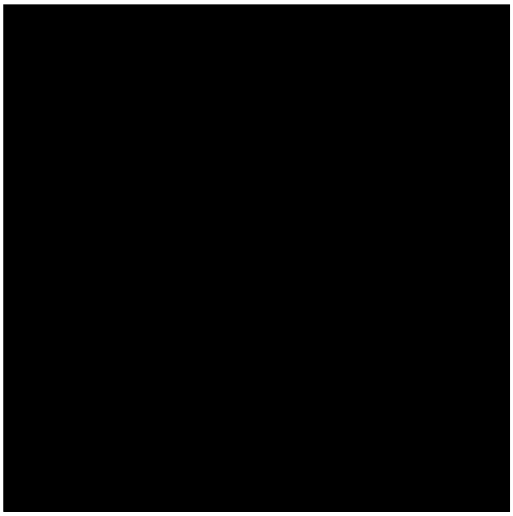
2003.03.15 조각그룹광장 소품전 KArTI Gallary

2003.04.23 2003조각그룹 광장정기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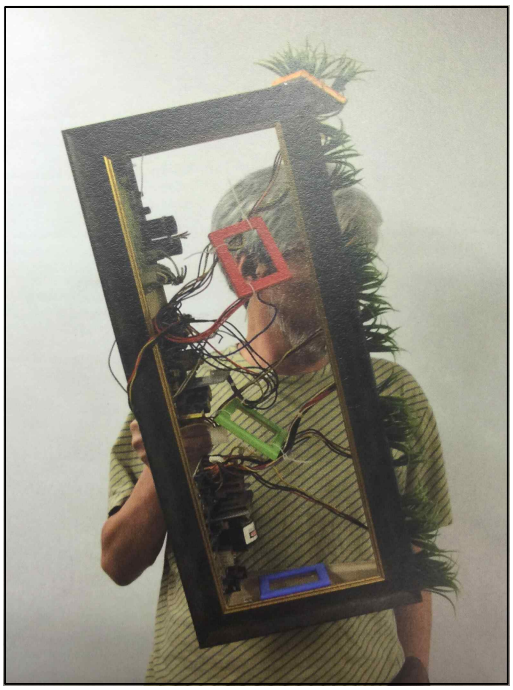
2003.05.17 NATURE AND SCULPTURE 모앙미술관

2003.05.21 서울예술고등학교 50주년 기념전 서울, 세종문화회관미술관



그루리 멋질 추리기 83890115

2003.07.09 제 34회 홍익조각회전 관훈미술관



2003.10.08 한글 꾸밍 전 서울 유림아트홀 101호

2003.12.25 2003 서울 북아트 - 아트 북아트 국립현대미술관 제7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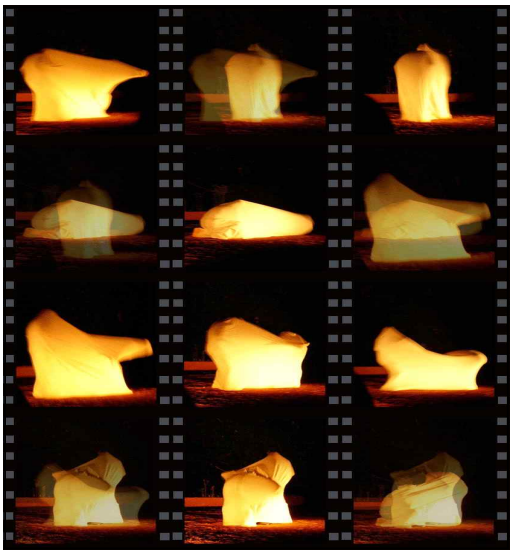
내가 만든 멋질책 모두와 안상수와 함께 펴낸 보고서 보고서 모두를 보여준 잔치이다.

2004.04.24 미술 밧 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그해 내가 쓴 평글을 내가 만든 글꼴들로 만든 그림과 멋질잔치이다.
빛밧이는 이은미

2004.05.12 2004 조각그룹 광장 정기전 세종문화회관

2004 06 관객설치, 죽산국제예술제, 죽산, 웃는돌 야외극장



내가 종이 위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모 종이가 나를 그린다.
나는 하얀 흙물이다.
나는 하얀 노래이다.
살아 움직이는 그림이다
끝없이 갇힌 곳 몸짓이다.
빛밧이는 송종은

2004.07.14 제35회 홍익조각회전 관훈미술관 서울

2007.09.11 place/space 누리 43370911
소당갤러리 헤이리

검은 털로 만든 먼짐들과 작은 물건으로 그린 그림들
빛밧이는 금두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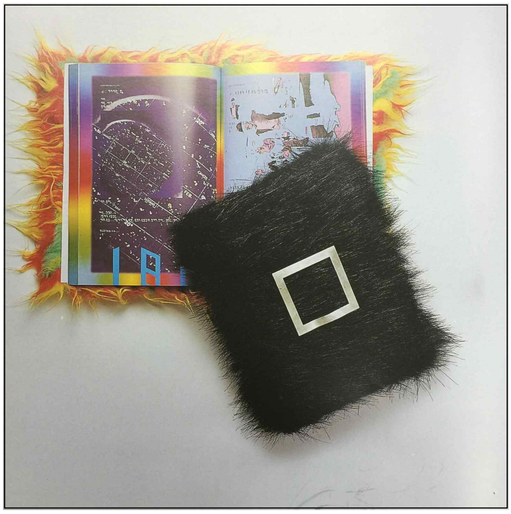
2004.10.24 자연-그 침묵의 소리 노래밧물관 남이섬
2004.11.16 제11회 성북미술전 성북구청
2005.05.18 2005 조각그룹 광장 정기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2005.05.21 광복 60주년 기념 한국미술의 오늘과
미래 고양시 묘앙 미술관

수레 먼짐과 내가 한 몸임을 드러내고 싶다.
빛밧이는 유한정

2005.07.13 36회 홍익조각회전 서울 관훈갤러리 전관

2005.12.07 이음 서울 인사아트센터



내가 펴낸 책 슬기로운 눈과 서로나눈 그림은 책껍질을 달리하며 내 방을 거쳐 나간다.
많은 책이 하나하나 달라지는 셈이다

2005.12.29 현대작가 40인전 서울, 갤러리 한, 강화, 심은미술관

2006.04.16 2006 조각그룹 광장 정기전, 서울,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코스모스갤러리

2006.05.08 Hybrid 언어에 대한 단상, 서울, 국민대조형갤러리

2006.06.07 ehs project 2006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007.04.18 2007 조각그룹 광장 정기전
세종문화회관미술관(서울)과 연수갤러리(인천)

2007.05.09 국민대학교-노바스코시아미술대학 교환프로그램 10주년 기념 금속공예전
2007.05.23 예동전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2007.06.11 2007 홍익조각의 흐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서울), 엘렌킴머피갤러리(양평)

2007.09.13 금누리 + 안상수 = ? 서울 쇳대박물관
2007.10.20 제 12회 성북미술전 서울, 성북전시관

글 누 리

2008.05.07 2008 조갓그룹 광장 정기전
모란갤러리 서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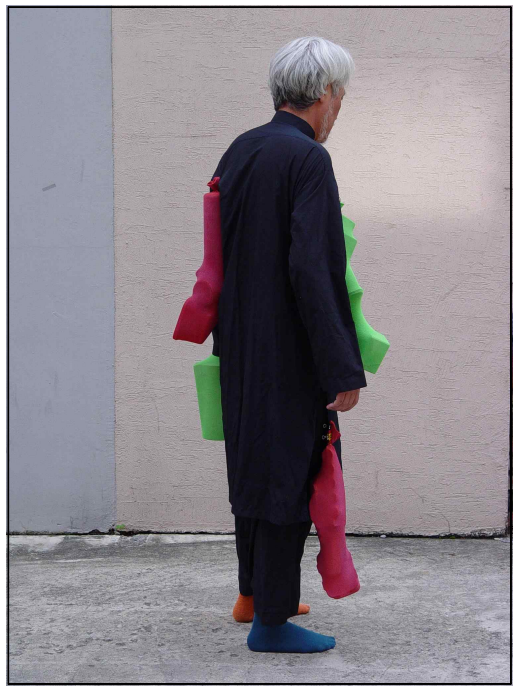
2008.05.19. 대한민국조갓100인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특별전시장

불탄 숭례문을 새로 고치는 돈을 모우고자 만든 먼질이다.
맑은 물을 쌓아 놓았다.
빛밧이는 한상덕

2008.06.17 디지털 미디어와 현대조갓의 만남 전 상앙
ir 타워 1층 전시관
2008.07.04 inner and outer space 전 마니스
아트센터, 경기도 양평

2008.09.23 디자인 포트: 글누리 + 안상수 서울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
2008.11.05 창립 55주년 기념 서울예술고등학교
동문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2009.05.01 2009 홍익조갓회전 서울시립미술관
2009.05.06 2009 조갓그룹 광장 정기전 세종문화회관
2009.06.25 2009 디지털 문화와 현대조갓전 서울
sair gallery
2009.07.01 미피의 즐거운 미술관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2009.07.23 패션의 윤리학 "찾하게 입자"
경기도미술관



찾하게 입기 생각에 따른 옷매마련인 셈이다.
가온 아시아 사람들이 절할 때 입는 옷에 이걷 저걷 주어
담아 만든 나의 먼질들을 달았다.

2009.10.01 2009 실파콘대학교 미술디자인 갤러리
전시회 실파콘대학교 미술디자인 갤러리, 방콕

버리게 된 납작한 물주전자를 내가 신던 버선에 담아 만든 손가방이다.
빛받이는 금드레. 뒤 소나무는 배병우의 빛받이

2009.10.07 2009 성남야외조각축제 분당 탄천 둔치

2009.10.12 홍익대학교 동문 및 전.현직 교수 작품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2관

2009.10.16 20세기 출판 보고 교수 저서 전시회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09.11.25 한얼 alliance FranCaise, Victoria city, seychelles
한얼, 빅토리아, 세이셸공화국 프랑스문화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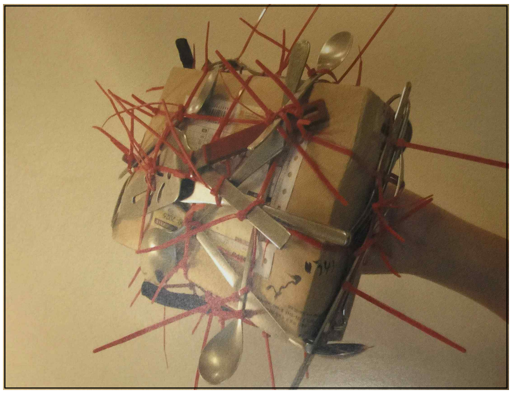
...

빠른 그림 갓그림

2009.12.01 상념의 시작전 성북구립미술관

2010.02.17 한얼-곧없이 그리운 세이셸 서울, 김진혜갤러리

2010.03.31 2010 조각그룹 광장 정기전 서울, 라메르 갤러리



나의 먼짐들이 실린 책 자음과모음을 받은 뒤 뜯지 않은 채로 수저나 칼 등등 먹을거리 연장들을 붙여 새로운 먼짐을 만들었다. 빛받이는 구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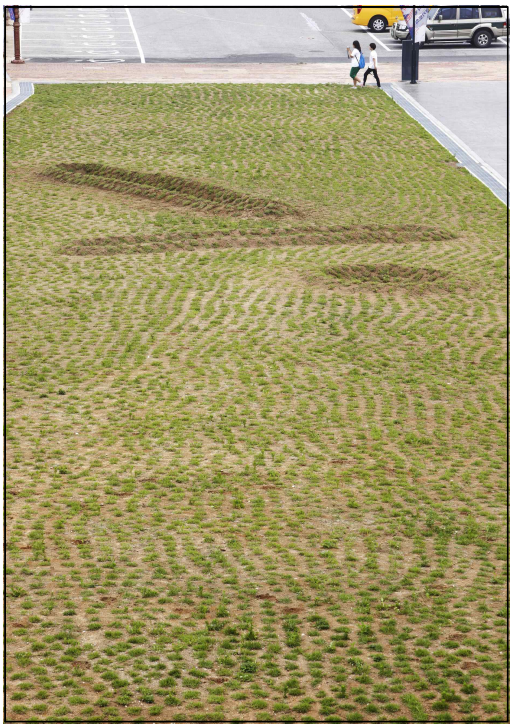
2010.06.17 조각 2010 인천, 트리엔날레 밀라노인천 특별전시관

2010.12.01. 서울미술대전-한국현대조각, 서울, 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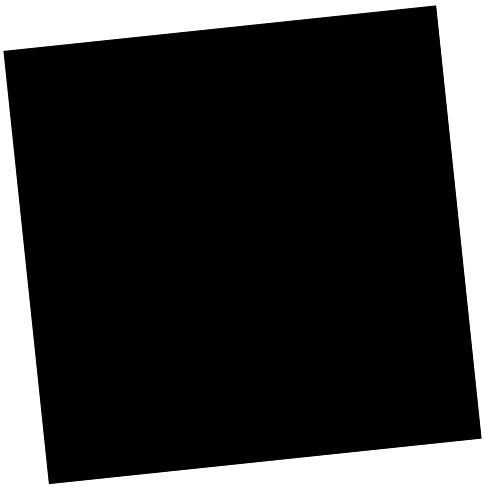
버려진 길에서 주워 모은 것들을 길로 펼친 먼짐이다.
빛받이는 구름비

2010.12.20 이건이 미디어 아트다 / 아트센터 나비
2011.06.30 2011 조갓그룹 광장 정기전 상암 ir 타워 sair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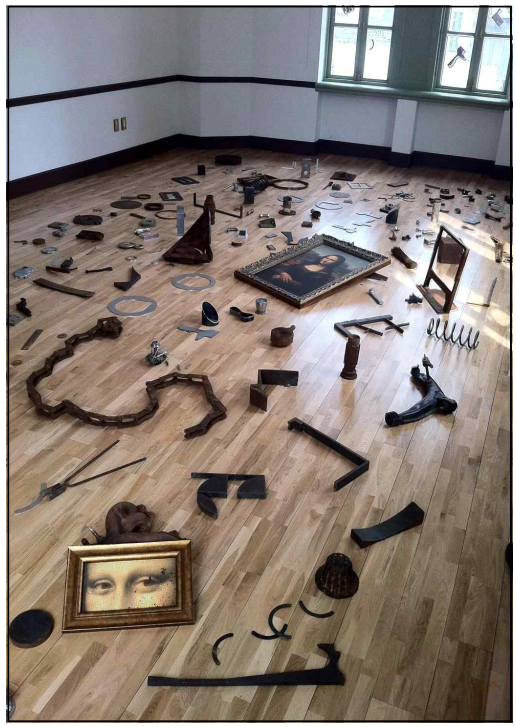
2010.07.09 유원지에서 생긴 일, 안산, 경기도미술관



풀밭에 만든 하늘 땅 사랑
빛밧이는 강태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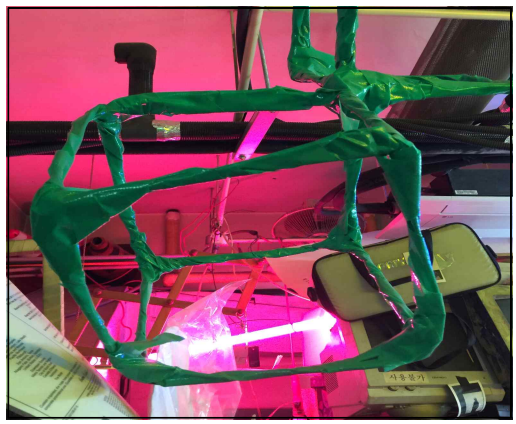
2012.07.03 오래된미래 문화역서울284



버려진 쇠 조갓들과 모나 리자 다 빈치의 갈라진 틈과 조갓을 함께 풀어 보았다

2012.08.15 1001 전 인사갤러리

2012.08.22 조갓7012전 서울, 토포



푸른 풀띠로 만든 얼개

2013.05.18 예술열원한빛 서울,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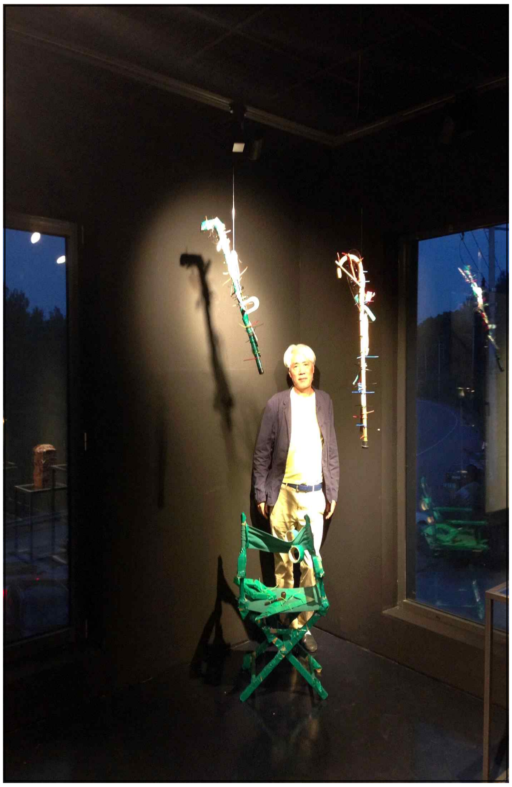
2013.05.23. 광장조각회 2013 정기전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sair갤러리,광주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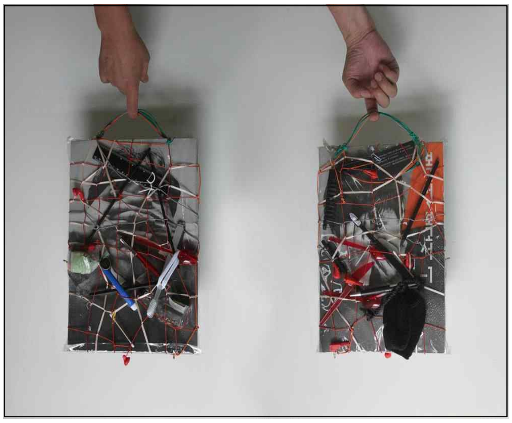
번 안상수가 일터를 옮기며 비운 곳에서 마련한 번개 먹질잔치이다. 빛박이는 노순택, 박기수, 이재용 가운데 한사람 이 잔치에는 모두 함께 하였다.

2014.05.21 24회광장조각회정기전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2014.07.16 43회홍익조각동문회정기전 인사아트센터

2014.08.28 어거스트하우스미술관개관기념전 양평,
어거스트하우스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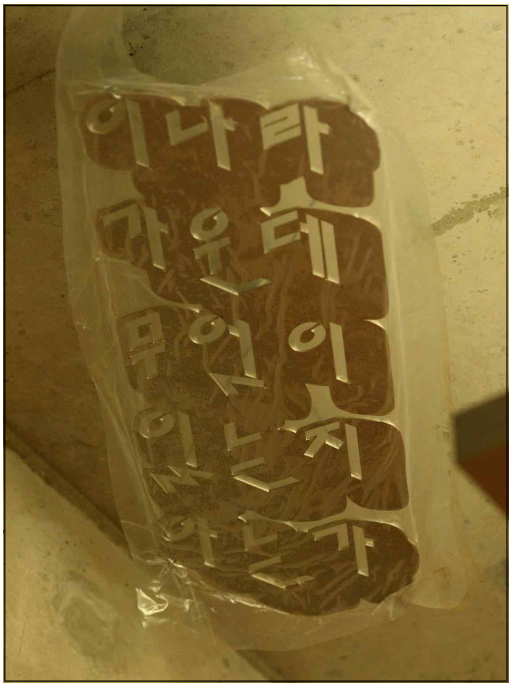
2013.08.15 날개집.이사.프로젝트.
"날개.붓행.이사.이상" 서울 날개집





어머니에게는 무거워 쓸모없는 나무 지팡이 이것저것 붙여
즐길 거리로 만들다

2014.10.09 하나뿐인 글,한글 서울, 국립한글박물관



내가 만든 책들을 보이고 내글꼴로 만든 몇가지를 파는 잔치
국립한글박물관 새로이 여는 것을 기리며 내가 만든
글꼴들로 만든 것들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마련한 잔치
빛박이는 김성태, 구름비

2014.10.11
2014년제15회DMZ국제예술제야외드로잉미술전
DMZ국제예술제조직위원회.한강생명포럼
2014.10.18 c-artmuseum초대홍익조각회전
양평c-artmuseum
2015.05.21시간의통섭, 제25회광장조각회정기전
한전아트센터,서울

●■▲ 나라밖에서 보임

1977.08.06 한국미술청년작가전, 필라델피아,
발치인스티튜트미술관
1979.02.13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파리, 국제미술회관
1979.03.21 살롱 쉬르앙방당, 파리, 룩셈부르그 미술관
1981.03.26 한국현대작가전, 파리, 한국문화원

1984.02.27 한국현대조각 단면전, 도쿄, 한국문화원
1984.08.02 제23회 올림픽 기념 홍익조각회전,
로스엔젤스한국문화원
1986.04.07 서울 현대미술 6인전, 도쿄, 갤러리 K
1989.02.14 한국현대미술전, 멕시코시, 국립현대미술관

1994.0?.0? 책을 소재로한 미술전. 바르샤바. 베를린
1996.08.27 나고야.서울.입체조형의 교류전, 나고야,
시민갤러리,
2000.01.15 머리조각 ° ^ ^ 전,
서울,파사데나,텔아비브

2001 한글전, 도쿄, 지지지갤러리, 오사카, 디디디갤러리
2002.02.15 영혼의 바람, 카트만두 네팔왕립미술관
2002.10.01 광장전 가수가이시도서관 문화예술 센터
2009 한얼, 빅토리아, 세이셸공화국 프랑스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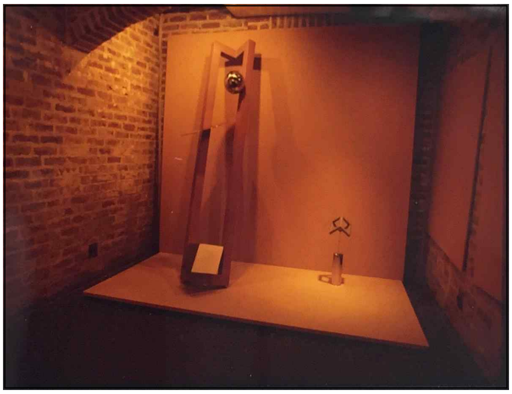
●■▲ 지닌 곳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목포시립조각공원, 목포
신천지미술관, 제주
토탈야외미술관, 장흥
계몽문화센터, 서울

한국은행, 서울
안그라픽스, 서울
현대 보험 사옥, 인천
낙동강변 공원, 부산
테오도르 현대미술관, 토론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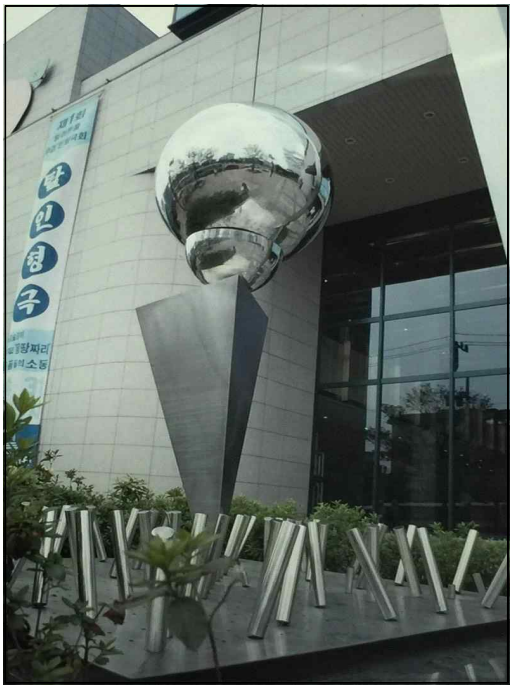
문화체육부, 서울
바자렐리재단(미반출.압류), 엑상프로방스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서울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서울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경기미술관, 안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목포시립조각공원, 목포



계몽문화센터,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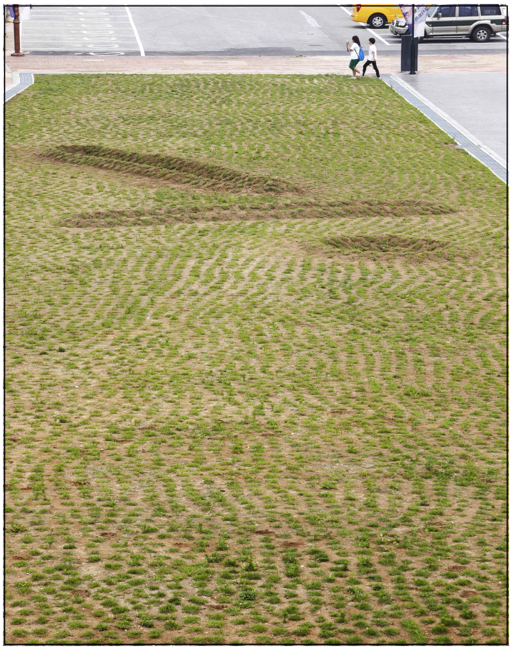
한국은행, 서울

낙동강변 공원, 부산

서울현대보험 사옥, 인천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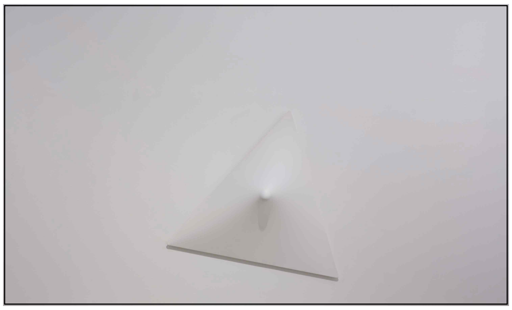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경기미술관, 안산

●■▲ 마련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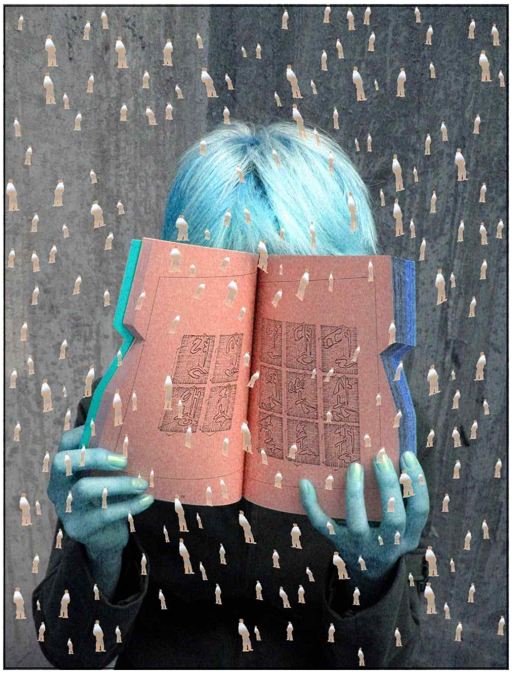
곰누리 글꼴 만듦, 1991.2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공누리 멋진 추리기

궁 글꼴 만듬, 199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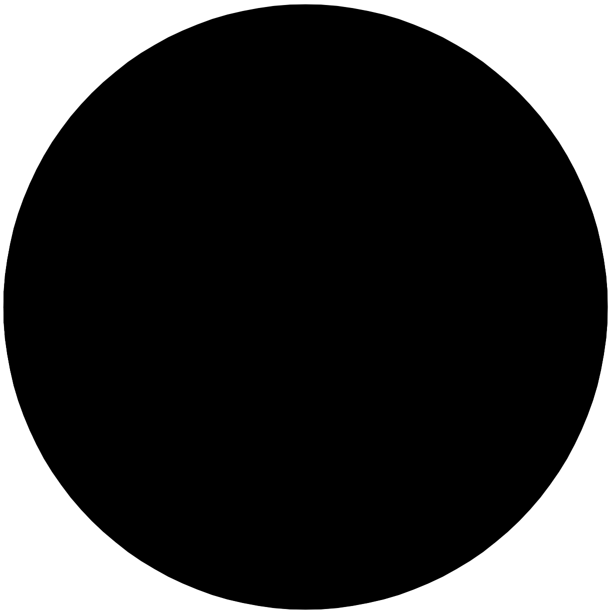
두루쓰기 애지음, 1995,3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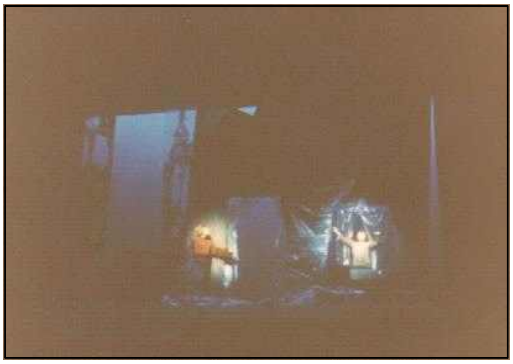
공누리 몸글꼴 만듬 2011.02.28

나 안에 내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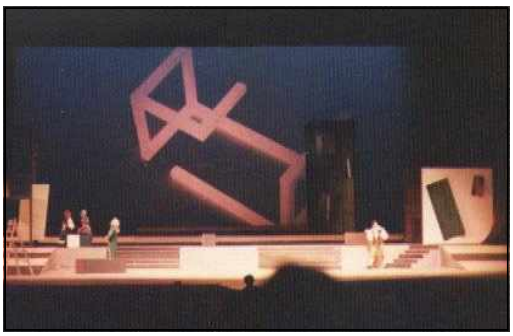
I AM YOUR TYPE



오페라 '파우스트' 무대 마련, 서울, 국립극장, 1975.9.26.



오페라 '사랑의 묘약' 무대마련, 국립극장, 1977.10.1.



주간 '디자인 뉴스' 책이름 마련그림, 1991
책 걸쪽 마련그림: 한국의 자원 배분과 무역정책, 황낭일 지음, 서울, 단국대 출판부, 1991
책 걸쪽 마련그림: 무역정책론, 황낭일 지음, 서울, 대원사, 1994
책 걸쪽 마련그림: 월간 '디자인' 1996.11
책 걸쪽 마련그림: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황낭일, 이홍무 지음, 서울, 무역경영사, 1997

●■▲ 지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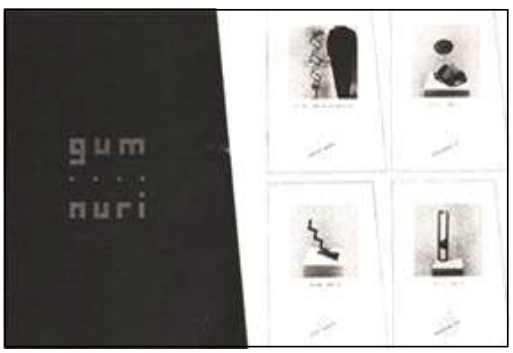
짤셍 /책이름 /지은이,
엮은이 /마련그림비 /낸터 /펴낸때 /곡 /크기 /무게 /만듬새 /못음새 /쪽 /값 /두드러지는 걸

1 / 네모꼴을 위한 변주 / 금누리 / 금누리 / 한국미술청년작가회, 1977. 서울 / 250 × 240.5 밀리미터 / 29 그랑 / 사진식자, 석판 / 놀러 접기 / 4 쪽 × 네모설기 /

금누리의 1977 작업으로 안쪽을 펴면 설기 덩어리가 나타난다.
단순한 네모가 여러 가지 차원으로 바뀌는 걷을 드러내며, 스스로 입체이다

2 / 누리 1982 / 금누리 / 안상수 / 마당, 1982, 서울 / 130 × 180.5 밀리미터 / 114 그랑 / 공병우타자, 석판 / 떳풀칠 / 158 쪽 / 값; 1,000 /금누리가 1982 해 평면과 입체 꼴을 서로 섞어 만든 설기를 받은 그림들이 실려 있다.
모두 폴라로이드를 받아 씼다.
볼게 처리한 바탕 그림 맞은 쪽은 여린 노랑으로 묻어난 듯 거꾸로 되찟었다.
거칠고 누런 종이와 싸개종이에 받아 빛깔과 손대는 느낌이 남다르다.
이 책 마련은 안상수와 김장섭이 함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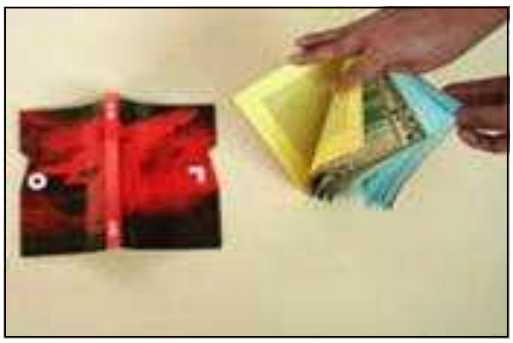
3 / gum....nuri / 금누리 / 안상수 / 안그라픽스, 1987, 서울 / 180(위폭) * 278(높이) * 205(아래폭) 밀리미터 / 422 그랑 / 활자 조판, 석판 / 떡풀칠, 사다리꼴로 자름 / 158쪽 / 값: 5,000 $, 11.95 /
이 책에는 금누리가 1987 해에 만들어 보인 걷들을 받은 빛그림과
그에 따른 홍가이의 글이 실려 있고, 윤우핫과 나눈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즈음에 지녔던 금누리의 생각을 살펴 깨달을 수 있으며, 편집디자인은 안상수, 빛받이는 배병우이다
그 때는 이미 잘 쓰이지 않던 활자 조판으로 꾸며 찍은 걷이 두드러진다.
쓰인 글: 한글, 잉글리시



4 / 금누리 1991 / 금누리 / 안상수 + 이순주 / 안그라픽스, 1991, 서울 / 178(위폭) * 270(높이) * 178(아래폭) 밀리미터 / 275 그랑 / 셀틀로 뽑은 뒤, 석판 / 떡풀칠 뒤 여섯 모로 나눠 톰슨 자르기 / 168 쪽 / 값: 10,000 /
이 책에는 금누리가 1991 해에 보여준 작품들을 받은 빛그림과 글이 실려 있고,
지은이가 1990년에 새로이 생각해낸 금누리글꼴로 받은 첫 책이다.
여러 사람의 물음 400 여 가지에 금누리가 짧게 답한 걷이 실려 있어서
그즈음의 금누리를 살펴 깨달을 수 있다.
미술사가 정영목의 글이 실려 있고, 편집디자인은 안상수와 이순주, 빛받이는 배병우이다.
프랑새로 옮긴 물음과 답도 금누리 스스로 옮긴 걷이다.
쓰인 글: 한글, 프랑새, 잉글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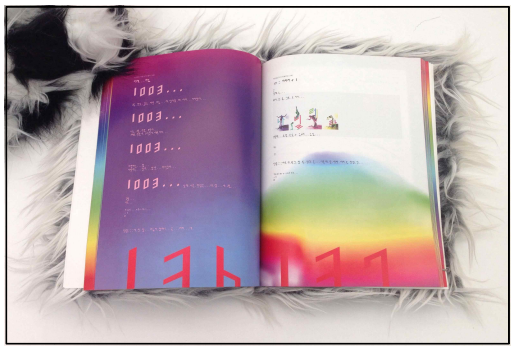
5 / nuri....gum sculpture / 금누리 / 베스코라인 / theodore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2, 토론토 / 95 * 210.5 밀리미터 / 80 그랑 / 셀틀로 뽑은 뒤, 석판 / 소용돌이 줄 못기 / 44 쪽 / 값: $10.00 /
이 책에는 금누리가 1992 에 보여준 만든 걷들과 글이 실려 있다.
미술사가 정영목과 joanne curia 가 금누리 작업에 관한 글을 실었고, 배병우와 이주현이 받은 빛그림을 담았다.
새로이 만든 금누리글꼴을 씌움에도 토론토 베스코라인에서 편집디자인하고 펴내었다.
쓰인 글: 잉글리시

6 / ㅓ ㅇ / 금누리 + 안상수 / 금누리 + 안상수 / 안그라픽스, 1993, 서울 / 150(위폭) ✻ 200.9(높이) ✻ 150(아래폭) 밀리미터 / 311 그랑 / 셍틀로 뽑은 뒤, 섯판 / 떡풀칠 뒤 책 모퉁이 또는 펼칠 모서리 가운데 톰슨 자르기 / 216 쪽 / 값: 10,000 /
이 책에는 금누리와 안상수가 1993 에 보여준 만든 걷들을 밧은 빛그랑과
글이 실려 읽고, 책 하나에 앞걸쪽이 둘이며 뒷걸쪽은 없다.
ㅓ, 금누리와 , ㅇ, 안상수의 두가지가 함께 당겨읽다.
이 책을 펴내는 일을 기리며 금누리는 구릉글꼴을 새로이 만들어 담아 놓았다.
ㅓ 에 읽는 글은 금누리 스스로 쓴 걷이고, 빛밧이는 유창옷과 이주헌이다.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쓰인 종이를 섞어 덛 부쳤기 때문에 똑같은 책이 하나도 없다.



7 / 타이틀 매치 금누리 JS 홍정표 / 금누리 + 홍정표 + 김홍희 + 유진상 + 김상우 + 김혜진 / 김홍성 / 서울시립미술관 / 2016, 서울 / 178(가로) ✻ 250(세로) 밀리미터 / 222 그랑 / 셍틀로 뽑은 뒤, 섯판 / 떡풀칠 뒤 딱딱한 천 껍질 / 132 쪽 / 디자인 사전 /안그라픽스.19941131.금누리 + 68 슬기로운눈 /두루누리,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50228, 금누리

서로나눈그랑 / 두루누리,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50228, 금누리



타이틀매치 금누리 JS 홍정표,
서울시립미술관,20150908,,김홍희, 유진상, 김상우, 김혜진

●■▲ 평글

환경소의 조갓에 관한 연구(1979.2. 석사학위 논문)
평면형태의 연소적 배열을 통한 3차 공간형태의 응용(1983.2. 조형논총)

전환형태에 관한 연구 (1984.3. 조형논총)
조형 공간에서 키네틱 아트에 관한 연구 (1985.2. 조형논총)
입체형태 지각에 관한 연구 (1986.3.조형논총)

환경 조형에 관한 연구 (1987.2 조형논총)
입체 형태의 평면 표현에 관한 연구 (1989.2.조형논총)
움직임에 대한 형태 지각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90.2,조형논총)
글자꼴의 입체적 표현에 관한 연구 -공누리체의 개발을중심으로- (1991.2,조형논총)
과학적 사고의 조형적 전환에 관한 연구 (1993.2. 조형논총)

입체의 양감과 표면의 조형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새로운 조형개념 정리를 위한 지적 조형 영역과 그 사고의 확산- (1994,2, 조형논총)
4차원 글꼴에 관한 연구- 움직이는 구름 글꼴 - (1995,2, 조형논총)
전자시대의 조형예술에 있어서 실험적 사고에 관한 연구 (1996,2, 조형논총)
전자 문자를 통한 비시각적 공간지각에 관한 연구 (1997,2, 조형논총)

표준자판 변용 조형에 관한 연구 (1998,2, 조형논총)
상대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형적 상징 표현에 관한 연구 (2001,2, 조형논총)
화상 출력 여건에 따른 전자 조형의 변환 (2002,2, 조형논총)
평면 지각과 입체 지각 형상 혼용에 관한 연구 (2003,2, 조형논총)
그림과 글을 함께 이어줄 수 있는 고리 마련 (2004,2, 조형논총)

쪽과 쪽 사이 빈 곳을 이어주는 꼴과 얼개 (2005,2, 조형논총)
되비친 그림자와 뒤집은 꼴과 얼개 (2006,2, 조형논총)
휘어진 널에 놓인 그림자 (2007,2, 조형논총)
'두루쓰기(4328 해에 엮어지음)에 알맞은 글꼴 만들기 (2008,2, 조형논총)
잠자리나 지렁이가 보는 꼴과 얼개 (2009,2, 조형논총)

온꼴과볼록꼴그사이 (2010.02, 조형논총)
몸으로드러내는공누리글꼴 (2011.02, 조형논총)
버려진꼴과얼개찾기 (2011, 02, 조형논총)
글꼴.치레...실기덩이로.드러내는.치레꼴 (201302, 조형논총)
움직이는.글꼴그.낱꼴들.사이.잇기와.얼개.만들기 (2014,02 조형논총)
공누리번개날터살펴추리기4338 (2015,02, 조형논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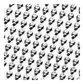
●■▲ 함께 엮은 일

2000년대 서울 도시계획 조형부문 연구보고서 연구원 (H조형연구소) 1977
독립기념관 전시 기본계획 연구원 (독립기념관 건립추진 위원회) 1984
올림픽 대교 지명공모(우보기술단) 기획과 자문위원 1985
세비아 세계박람회 한국관 지명설계(우원 건축) 자문위원 1991

●■▲ 엮어 찾기

서울시 제2기 지하철 역사 예술장식품 심의위원 1993
대구시 지하철 역사 예술장식품 심의위원 1994
인천시 지하철 역사 예술장식품 심의위원 1994
한국전력 수자원 전시관 시설 심의위원 1994
대구경찰청 환경조형물 심의위원 1996.3.28

제2회 오토데스크 컴퓨터디자인대전 심사위원 1996
광주시 지하철 역사 예술장식품 심의위원 1997
제3회 오토데스크 컴퓨터디자인대전 심사위원장 1997
제4회 한국 컴퓨터디자인대전 심사위원 1998.2.25.



●■▲ 다른 가르침

공누리 작품 세계와 환경조각, 건축가단체 금우회,테크노. 형태는 바르게 보이는 것인가, 한국인테리어디자인 협회,케비에스 연수관.

글 누 리

환경조각, 영관급 이상 장교들 대상, 전쟁기념관.
형태와 공간은 바르게 보이는 것인가, 중등학교 미술교사 대상,
국립현대미술관.
예술+ 글누리+ 테크놀로지, 미술가와 애호가 대상,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과학기술재단.19911220.
지혜로운 눈, 건축 전공 대학원생과 교수 대상, 경기대학교
과학적 사고의 조형적 전환, 디자이너 대상, 안그라픽스
보고서\보고서에 대하여, 학생과 교수 대상,
계원조형예술학교.19941207.
시각언어, 학생과 튜터 대상, 서울 건축학교.19950307
지혜로운 눈, 건축과 재학생과 교수,
서원대학교.1995.1205
현대미술, 국민대 경영대학원, 1996
지혜로운 눈과 미술의 이해, 단국대 경영대학원, 1997
글누리의 조형교육, 중등학교 미술교사 대상, 환기미술관,
1998.5
디지탈 시대의 조형적 사고,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2000.3
디지탈과 문화, 30,40대 지도층, 새사회네트워크,
2000.3.20
새로운 발상을 향해, 미술인과 애호가 대상, 환기미술관,
2000.5.20
건축가는 어디에 읽어야 하는가, 한국건축학교,
2000.6.26
타이포디자인 크리틱, 중국중앙미술학원
ㅁㅁㅁ, 중국, 후난과학기술대학, ㅁㅁㅁㅁ
보고서 보고서, 홍익대학교 국제대학원, ㅁㅁㅁㅁ
xd크리틱, 홍익대학교, ㅁㅁㅁㅁ
꼴과일,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201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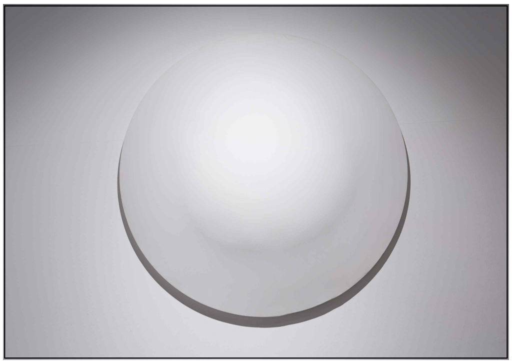
●■▲ 아래 먼질들 글은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 김혜진이 지난해에 나와 이야기를 나눈 뒤 그니가 다듬은 글을 그대로 따온 것이며, 빛박이는 김상덕, 잔치알림 마련그림은 김홍성이 함께 하였다.
그 뒤 이 글들은 서울시립미술관(발행인:김홍희 관장)에서 펴낸 책 '타이틀매치 글누리 JS 홍정표'에 모두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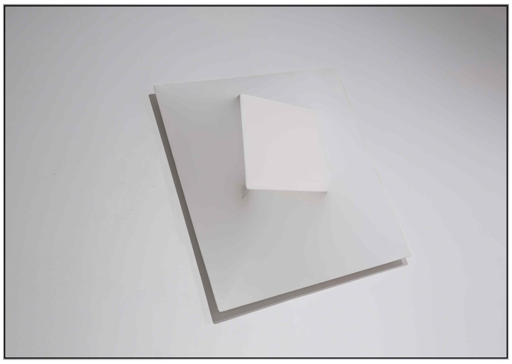
누리.글길 43400913-43480908

〈누리.글길〉은 작가의 작업관에 큰 변화가 일었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에 해당하는 작업 중 하나로 공장이나 일터에서 버려진 금속 덩어리들을 전시장으로 옮겨 갓 사물에 내재된 새로운 조형적 언어를 창출해낸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 작가는 기존의 〈누리.글길〉을 새로운 공간과 틀에 맞게 재구성하여 선보인다.
작가의 시선에 포착된 오브제들은 고유의 효용성을 벗어나 형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 기호로 읽히며 관람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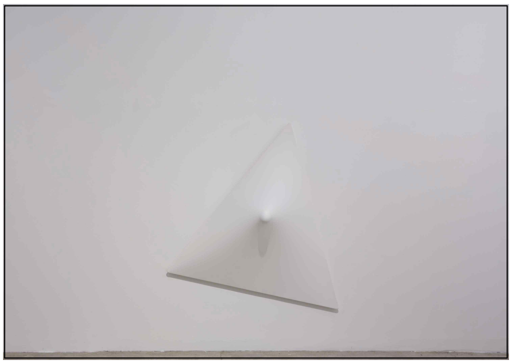
누리.움직임 43370608-43480908 02



누리.움직임 43370608-4348090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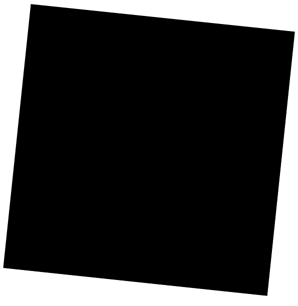
누리.움직임 43370608-43480908 04



누리.움직임 43370608-43480908 01

작가는 이번 전시에 '하늘.땅.사람'의 개념을 적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 중 하나로 10미터 가량의 흰색 당길과 하늘을 뜻하는 동그라미, 땅을 뜻하는 네모, 사람을 뜻하는 세모 덩어리를 흰색 구조물로 제작하였다.
〈누리.움직그림〉이라는 제목에서 상상해 볼 수 있듯이 작가는 흰색 길에 들어가 도화지처럼 깨끗한 공간 안에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드로잉을 한다.
작가의 고백처럼 스스로 '하얀몸' '하얀노래'가 되어 나와 너의 살아 움직이는 그림이자 노래이자 몸짓이듯...

누리.땅힘그림 43480908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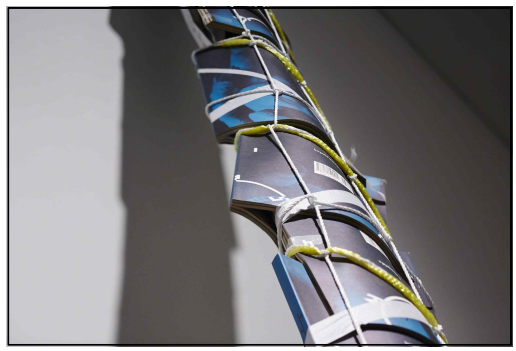


누리.땅힝그링 43480908 02

누리.땅힝그링 43480908 03

작가가 '하늘.땅.사랑' 개념을 적용한 작품으로 철저하게 중력, 땅덩이 가운데로 당기는 힘을 이용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물감을 붙는 순간의 최소한의 행위만 할 뿐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기다란 평면 화폭과 경사를 이룬 원형 탁자를 두고 물감을 흘려 중력을 가시화 한 작가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힘으로 빠른 작품을 완성하였다.
"중력이 없는 곳에 어떻게 고른 면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작품의 구상은 결국 "소실점은 수평선이 아니라 땅의 중심에 잡아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작가의 생각이 작품으로 구현되었다.

누리.책-보고서/보고서 43480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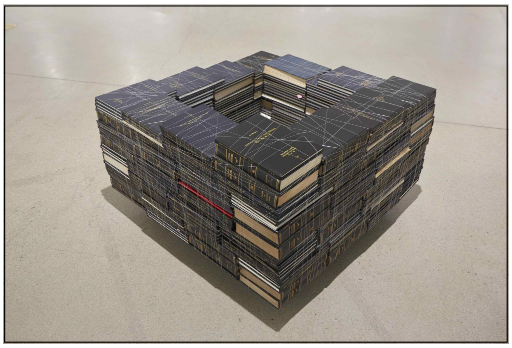


'하늘.땅.사랑' 개념을 적용한 〈누리.책〉 연작이다.
이 작품은 그 중 첫 번째로 1988년 벌 안상수와 공동창간한 『보고서/보고서』의 실험적 표지들이 보이도록 책을 펼쳐 4미터 가량의 기다란 쇠 막대기에 엮은 것이다.
작가에게 『보고서/보고서』는 그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로움과 자신감,
그리고 성실함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책의 제목인 '보고서'는 리포트(report)의 의미와 '보고서, 보고 나서, 만든다'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보고서/보고서』 중 14호를 활용하여 책 기둥같은 형상을 제작하였다.
책 뿐 아니라 발견된 오브제들,
텍스트들을 자유자재로 병합하고 병치하는 방식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작품에 적용된 작가의 대표적 작업 방식이다.

누리.책-슬기로운 눈 . 서로 나눈 그림 43480908

〈누리.책〉 연작의 또 다른 작업인 〈누리.책-슬기로운 눈과 서로 나눈 그림〉에는 작가 특유의 미감과 교육관, 예술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교과서를 뫼비우스 띠로 엮은 작업으로,
두 종류의 교과서 중 〈슬기로운 눈〉에는 꼴의 탄생과 작가의 철학적, 개념적 주장이 그가 만든 글꼴로 담겨 있으며
〈서로 나눈 그림〉에는 작가의 조형 철학과 학생들, 지인들과 나눈 대화와 생각들이 한글꼴 실험들로 실려 있다.
특히 당시로서는 새로운 시도였던 예술계 종사자들과의 온라인 좌담과 같은 행위들을 고스란히 편집 없이 기록으로 담기도 한 작가는 그러한 자신의 삶과 예술이 담긴 책의 본문이 드러나도록 내지를 펼쳐 작가의 세계관과 작업관을 관객에게 열어 보인다.
'배워 나누자' '만들어 남들이 배우도록 함께 나누자',
곧 또 다른 생각을 위한 바탕으로 역할하길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있다.

누리.책-배우미.평글들 43480908



〈누리.책〉 연작 중 작가가 심사하거나 지도해 온 학생들의 학위 논문과 작가가 소장해 온 사진을 재료로 한 작품이다.
작가는 오랫동안 서구 중심으로 편성된 교육 환경과 지식의 흐름을 수동적으로 습득하는데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경계한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 만든 것을 거꾸로 널리 알리기를 바라며 기존의 지식을 편집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을 탈피하고자 한다.
단순한 정보 수집, 분류의 차원을 뛰어 넘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쓸모와 가치가 있는 지식을 창출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작품인 셈이다.

내.예.술.한.잔.반.게

1997년 11월 27일, 개인용 컴퓨터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 작가는 홍익대학교 4학년 조각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예.술.한.잔.반.게'라는 제목의 시험문제를 전산망에 출제하였다.
작가는 이상(李箱, 1910~1937)의 작품 몇 가지와 자신의 생각을 안상블라주 한 일곱 문제를 학생들에게 띄우고,
작가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답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한국미술계의 변화 중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금누리 작가는 구속과 억압의 시대에 기존 형식체계에서 초현실적이리만큼 자유롭고 파격적 행보를 보였던 이상과 그 모습이 닮아있다.

뉴리.걸상 43300714

작가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뇌와 생각들을 잊고 걸터앉을 수 있는 걸상을 만들었다.
이 작품은 편안하게 앉을 때 느낄 수 있는 안락함과 따뜻함을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인간이 가지는 휴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엉덩이의 걱정거리도 잴 수 있는 걸상을 만들 수 있겠다고 했다

뉴리.삽 43480521

작가는 눈을 치우는 삽에 본인이 정기 구독했던 잡지 wired와 술을 함께 담았다.
잡지 『wired』는 최신기술, 사회적 기술, 광고 컨텐츠가 주를 이루는 잡지이다.
눈삽처럼 많은 걷을 치우는 걷이 있는가
그 위 그 안에 가장 앞서 나갔던 책 와이어드와 술을 담았다

뉴리.벋 43420625

작가의 집 앞으로 고인이 된 벋 이규철이 참여한 전시도록이 배달되었다. 작가는 책 봉투를 뜯지 않고, 뉴욕현대미술관에서 구입한 색연필을 엿은 끈으로 걸어 두었다.
돌아가신 벋 이규철 앞으로 책이 내 집에 배달되었다 나는 그 봉투를 뜯지 않고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산 색연필과 끈을 엿어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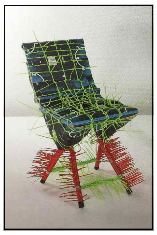
뉴리.다리 43421012

작가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먼진 아가씨 옆을 지나갔다고 한다. 그 아가씨는 다리 한 쪽을 잃어 목발을 짚은 채 걸어가고 있었다.
작가는 집으로 돌아와 본인이 신던 양말을 길게 당겨 새로운 다리를 제작하였다.
여린 빛 짧은 치마에 나무발을 두 손에 걸친 먼진 아가씨가 바쁘게 지나간다
다리 하나가 없다
나는 내 양말을 길게 당겨 새 다리를 만들었다

뉴리.걸상 43460523

작가는 연출가의 야외용 걸상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을 걸상에 붙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작가가 사용하던 당배 대롱을 붙여 작가만의 걸상을 제작하였다.
마치 그 걸상이 작가의 걷인 걷처럼...
밧갈에서 쓰는 걸상을 안으로 끌어드려 동그라미 네모 세모 꼴들을 풀빛 띠로 엿었다...
당배 대롱은 우두머리 먼질비의 걷

뉴리.걸상 40410913



작가는 자신이 제작한 책 『보고서/보고서』 파본을 재료로 작가만의 걸상을 만들었다.
『보고서/보고서』는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작가가 만든 걸상의 깔개로 재탄생 하였다.
가장 열심히 만든 책 보고서/보고서 한쪽이 잘못되어 버리게 되었다
걸상의 깔개로 만든 셈이다

누리.지팡이 43470716

작가는 어머니의 무거운 나무 지팡이를 버리지 않고 즐기실 수 있는 볼거리를 이것저것 붙여 새롭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조각들에 담은 작품이다.

누리.보고서/보고서-1 43450714

작가는 벗 안상수와 함께 제작한 책 『보고서/보고서』의 창간호를 가지고 해외로 향했다.
이 작품은 여행 중 비행기와 호텔에서 받을 수 있는 소모품들, 이어폰, 수저, 칫솔, 펜들을 『보고서/보고서』에 엮어 완성한 작품이다.
작품의 전면과 후면에 각각 김누리와 안상수의 초상이 들어있다.
안상수와 함께 만든 보고서/보고서 헌책과 안상수와 함께 간 나들이에서 얻어 쓰고 버릴 것들로 함께 엮었다

누리.눈금.무게 43340813

작가에게 휘어진 눈금자는 마치 차들이 오가는 도로와 같다.
그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그 눈금을 따라지나가면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룬다. 휘어진 자 위에 놓인 모형자동차들은 균형감 있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 작가의 의도대로 나무에 매달린 벌레집 형상으로 우리에게 시각적 유희를 안겨준다.
휘어진 눈금자에 작은 수레들로 벌레집을 지은 셈

김누리글꼴은 빛빠르기보다 넓다 4323-43400913

작가의 대표적 이론으로 1990년대 초반 작가의 3차원 글꼴에 관한 논문집에서 처음 언급된 표현이다.
“김누리글꼴이 빛빠르기보다 넓다”의 의미는 3차원 입체의 글을 2차원 평면에 새롭게 구현하는 ‘배열’에 관한 것으로, 글자 위치를 지을 때 시공간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하려는 작가의 생각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여러 종류의 글꼴과 쓰는 법을 창안한 작가는 바탕이 되는 글꼴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이 작품으로 응축하여 표현하였다.

김누리글꼴은 빛빠르기보다 넓다

귀 막고 보아도 들린다 4326-43400913

작가는 움직임이는 구름에서 영감을 받아 구름글꼴을 만들었다.
구름글꼴을 만들 때 찻안했던 글자를 눈으로 보는 건만으로도 소리가 들리는 건처럼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이집트 상형문자로 새겼다.
움직이는 구름글꼴을 만들 때 보는 건만으로도 들리듯 느낄 수 있다는 속뜻을 에집트 그림글자로 새겨본 건이다
귀맛고 보아도 들린다

누리.물 43410519

작가는 불에 타버린 숭례문을 다시 세우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누리 물〉을 제작하였다.
물이 담긴 통에 붉은 띠와 푸른 띠를 엮어 불을 끄는 소화기 형상을 떠올릴 수 있는 우스개가 깊든 작업이다.
불탄 숭례문을 다시 세우는데 드는 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건이다
맑은 물을 붉은 띠와 푸른 띠로 엮어 불끄는 물통 역할도 된다

누리.싸움틀 43290827

작가는 전쟁에 등장하는 배와 날틀(비행기), 수레(차)들을 엮어 고유의 기능을 없애고자 했다.
분명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작은 장난감들일지라도 한국의 정세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다.
작가는 스스로 즐겨 입던 옷에 작은 장난감들을 엮어 붙여 무게감있게 매달아 비롯된 무거운 마음을 표현했다.
싸움터에 쓰이는 배, 날틀, 수레 들들을 엮어 쓸모 없게 하고자 한 건이다.
작은 장난감들이라도 입고 있던 옷 뒤에 붙여 무거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슬기로운 눈 두루누리
서로나눈 그림 두루누리

작가는 자신이 가르치는 배우미들, 예술계 지인들과 나눈 대화 속에 담긴 생각과 자신의 예술관을 담아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그의 삶과 예술 영역에 수십년 쌓인 비결들을 널리 알리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 건이다.
슬기로운 눈 두루누리 서로나눈 그림 두루누리
위 책들은 배우미들을 가르치며 그들과 나눈 생각과 그림들을 엮은 건이다. 가까운 벋들의 몇몇 도움도 담아있다.

지난 타이틀매치 공누리 vs 홍정표 잔치에 옛것들을 모아둔 작은 방이다. 빛박이는 김상덕

●■▲

위에 쓰인 모든 글과 빛박이는 공누리가 함께한 멋짓잔치 때에 나온 펑글과 책들에 실려있다.